Chapter 1

협력학교 운영사례

▸ “내안에 너 있다!!!” / 23기 박영희

▸ 꿈과 희망을 찾는 아이들과 함께… / 10기 양미경

▸ 사랑으로 만나는 행복전도사 / 5기 이경자

▸ 서로의 거울이 되어 / 상담실 운영자 12기 김효영

▸ 아버지, 새롭게 눈을 뜨다 / 6기 지금숙

▸ 제 가슴 속에서 바람이 막 지나가요!! / 7기 이문희

“내안에 너 있다!!!”

자아를 찾는 시간여행 ‘동막초 심성수련’을 마치고…

23기 / 박 영 희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동막초등학교의 교문에 들어서자 수줍은 듯 미소를 머금은 봄꽃들과 귀여운 아이들의 해맑은 인사가 내 마음과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

겨울이 채 떠나기도 전에 찾아온 봄이라서 그런지 봄을 샘 부리는 추위 때문에 쌀쌀한 4월이었지만 봄 햇살이 드리운 교실은 따스함이 감돌았다.

설레임과 새로운 기대 속에 조금은 긴장되고 경직된 마음을 아이들에게 들킬세라 살짝 감추며 오늘의 심성수련 프로그램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다.

호기심에 어린 눈빛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6학년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이 성숙하고 작은 어른 같았지만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함이 아이다운 모습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니 역시 생각과 마음은 어쩔 수 없는 아이들이었다.

먼저 간단한 인사와 함께 나의 소개가 끝난 후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과 흐름을 이해시키기 위해 심성수련의 목적과 주의할 점을 알리고 나서 마음의 문을 여는 별칭 짓기를 시작으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내면의 세계를 찾는 시간 여행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1. 별칭 짓기 2. 아름다운 나 3. 연상화 그리기 4. 소감문 쓰기’로 이어진 심성수련 프로그램의 체험 활동에서 처음에는 편안한 분위기 때문인지 서서히 긴장이 풀리며 장난기가 발동하던 아이들도 점점 성의 있고 진지하게 친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활동에 몰입해 갔다.

'아름다운 나'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을 돌아보며 미래의 희망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특히, '연상화 그리기' 프로그램에서는 백지에 그려진 단순한 점 하나가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마력을 갖고 있었다.

아이들은 돌아가면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설명하고 또 친구가 그린 연상화를 비교해 보면서 사람은 나와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자아를 돌아보며 친구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만의 비밀스런 심성수련' 시간이 점점 지나감을 아이들은 무척 아쉬워하였다.

아마도 심성수련활동을 통해 컴퓨터가 모든 역할을 대신해 주는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냉소적이고 개인화 되어 가며 소외감을 느껴본 아이들에게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친구라는 존재의 소중함과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입시와 관련된 책읽기와 미술활동 및 음악활동 그리고 체육활동 등 취미생활 조차도 입시와 연관된 취미여야 하며 그 안에서 선택해야 하는 취미 아닌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

물질만능주의와 입시경쟁으로 인해 메마르고 각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며 또 이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도덕적 가치관의 부재로 생긴 그릇된 사고방식들로 인해 인간의 정이 점점 사라져 가고 내가 아닌 다른 학우들은 경쟁자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회가 문제인 것을 아이에게만 탓 할 일은 아니리라…

도시생활의 각박함과 틀에 짜여 있는 정형화 된 일상들 그리고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마음의 여유로움이 줄어들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부족한 것은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집단 상담인 심성수련 활동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내어 그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또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반성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며 사명이란 생각을 하였다.

아이들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갈수록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심성수련'을 통해 자아를 계발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운 심성이 길러진다면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는 분명 밝게 빛날 것이다.

오늘 하루 심성수련을 통해 '아름다운 성장은 곧 긍정적인 마음에서 시작 된다'는 믿음과 아이들의 마음을 대신 읽어주고 다독여 주고 안아주면서 서로에게 '사람의 정'을 교감하였다.

소감문을 제출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시작할 때와는 사뭇 다르게 밝고 온화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읽은 듯 친구들을 바라보는 눈길과 얼굴 표정에서 따뜻한 정이 오고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예쁘고 사랑스런 아이들…

프로그램을 마친 후 소감문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담은 아이들의 짤막한 글 속에서 느껴지는 '사랑과 정'이 내 마음을 감동으로 물들이며 별칭과 함께 아이들의 얼굴이 어느새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었다.

내게는 이번 심성수련이 아이와 부모와 교사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진정한 심성수련의 의미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는 소중하고 귀한 경험이었다.

학생상담자원봉사를 통해 내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며 참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생각하게 해준 이 일에 감사하며 오늘의 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있기까지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정갑순 인천교육과학연구원장님을 비롯해 이영숙연구사님 그리고 정혜숙회장님 및 선배 선생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꿈과 희망을 찾는 아이들과 함께…

10기 / 양 미 경

15년간의 봉사자 활동을 하며 세 번째 오게 된 부광중학교는 왠지 모를 친근감이 느껴진다.

지난 해 이 학교에서 활동했던 우리 봉사자들을 신뢰하신 덕분인지 담당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프로그램 결정을 전적으로 맡겨주셨다. 수업 첫 날, 학교에 가니 활동할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담당 선생님께서는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계속해서 챙겨주셨다.

먼저 교장 선생님께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 드린 후, 교직원 연수 시간에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이렇게 선·후배 기수가 적절히 조화된 우리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활동 장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앉아 있는 아이들의 얼굴만 보아도 그 날의 심성수련이 어떻게 진행될지 느껴지는 배태랑(?)이지만, 마음은 항상 새롭기만 하다. 해마다 다른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만나며 활동을 하는 우리 봉사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닐까!

아이들에게 오늘의 심성수련은 중학교 3년 동안 단 한번 할 수 있는 귀한 경험으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고 설명하니 긴장했던 학생들의 표정이 어느새 밝아졌다.

우선, 희망과 꿈이 담긴 '별칭 짓기'를 통해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했다. 10명 남짓한 학생들 중에는 내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평소에 생각해 두었던 것처럼 자신의 희망과 꿈이 담긴 별칭을 술술 써 나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다른 친구들이 다 쓸 때까지도 자신의 별칭을 무엇이라고 정해야할 지 몰라 막막해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래, 언제 너희들이 자신의 희망이나 꿈에 대해 여유롭게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겠니?"

고민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는 나의 마음도 안타까웠다. 지금까지 미처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생각해보면 된다고 말해주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몰두하는 것, 재미있어 하는 것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했다. 처음에 만족스럽지 못한 별칭을 지었던 학생들은 친구들의 별칭 소개를 들으며 자신의 별칭을 바꾸기도 했다. 각자 지은 별칭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 '자,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아보자!'고 하며 '나의 장·단점 말하기'로 들어갔다.

자신의 장점만 열심히 쓰고 단점은 별로 없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단점만 많다며 자신감 없이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 세상에는 장점만 있거나 단점만 있는 사람들은 없으니 사소한 것이라도 각자의 장점을 찾아보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래도 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본인이 모르는 자신의 장점을 친구들이 찾아 선물해 주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목표 사다리'를 했다. 처음 '별칭 짓기'에서 비속어로 된 별칭을 지어 걱정되었던 한 학생은 너무나도 부정적인 단어를 사다리 맨 위에 썼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감으로 가득찬 학생들을 볼 때에도 대견하고 흐뭇한 기분이 들지만 이런 학생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신경이 더 많이 쓰이기도 한다. 비록 턱없이 짧은 시간이지만 목표가 수정되기를 바란다며 간곡하게 이야기했다.

그래도 심성수련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며 그 학생이 해준 '수고하셨다.', '고맙다.'는 말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래, 내가 이 맛에 긴 세월 동안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활동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때로 봉사자들끼리 서로 부딪치거나, 학교에서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 힘들 때가 있다며 활동에 회의를 느끼고 나에게 조언을 구하는 봉사자들

이 있는데, 그럴 때에는 학생들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한다.

정작 내 아이들에게는 지금 학생들에게 하는 것처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라고 이야기해주지 못했던 것이 후회될 때도 있었지만, 어느덧 다 자란 아들과 딸에게 이런 후회를 이야기하자 아이들은 오히려 '그만하면 잘 키워주셨다'며 고마워해준다. 이러니 이제는 이 마음을 내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이 전해야겠다고 결심할 수밖에…!

별다른 목표 없이 나태하게 살아왔던 나에게 학교활동은 여러 가지 작은 목표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니 나 역시 학생들에게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아, 꿈과 희망을 찾아 힘차게 나아가자. 아자, 아자!

사랑으로 만나는 행복전도사

– 보건교사 심성수련 연수를 마치고–

5기 / 이 경 자

□ 학생 상담봉사자회 상담실운영계획으로 보건교사 심성수련연수를 5월 11일 부터 2주간에 거쳐 각 교육청별로 지역상담실 3개소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 우리 봉사자회가 24기를 맞이한 이래로 14년 만에 두 번째이다. 지난 세월을 거슬러 올라 1996년도에 활발히 이루어졌던 교사심성수련의 좋은 성과에 이어 양호교사 심성수련도 실시하였는데 학생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높은 호응을 보였고 지속적 연수를 요망하셨던 소감이 떠올려져 돕는 이로서 감회가 새롭고 반가웠다.

□ 예전에는 학교간호를 담당하는 양호교사에서 보건교과 개설로 수업담당과 업무도 체계화되고 학교 보건 전문가인 보건교사로서 직무역할이 확대되어 여겨져 내심 기대감도 커진다.

□ 프로그램은 자기개방으로 인간관계개선을 돕기 위한 '별칭 짓기'와 '오뚜기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였고 자신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자긍심 증진의 목표를 향한 '나는 이런 교사가 되련다.'의 자성예언

'마음가짐은 행동을 변화시킨다.'로 준비하고 각 지역상담 근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돕는 이로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운영을 하기 위하여 자체 연수회를 가졌다.

□ 년간 계획으로 계속 실시해오던 학부모 심성수련을 오전에 마치고 오후 예정인 보건교사 심성수련 프로그램 활동자료준비 중에 벌써 한 분이 상담실 문을 두드리며 "여기가 청소년 상담실인가요?" 하시며 학생교육문화회관 내의 상담실 위치를 찾는데 쉽지 않았다고 하시니 그래서 일찍 서둘러 오신 듯한 생각에 반갑게 맞이해 드렸다.

□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 가르치라고 배우러 오게 하신 것 인가요?" 하시는데 학교업무상의 연장으로 타의에 의해 의무적 참여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신다. 그런데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 분은 양호교사 심성수련실시 때 경험하셨고 오랜만에 마음의 여유를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시며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시어 내심 기뻤다.

□ 학교 보건실은 신체적 치료와 휴식공간이 될 뿐 아니라 개인대면으로 학생과의 상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여 학생상담에 관심이 컸으며 프로그램 활동에도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진지하게 호응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봉사자와 같은 동료의식도 가졌다.

□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심성수련 출장(?)으로 은근히 평소보다 빠른 퇴근도 기대하셨다고 한다. 또 심성수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참여자로 오해도 가지셨다는 솔직한 고백은 마음이 녹아 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소그룹의 집단상담이 부담도 되었고 그동안의 누르고만 살아온 것이 익숙해져 표현이 서툴렀지만 왠지 나를 발가벗길 것 같은 감추어진 자신과 만남에 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시니 학교와 가정에서에 충실해야 하는 역할에 애로사항을 힘들게 감수하고 계신 것이 엿보여져 같은 여성으로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 감정과 느낌이 있는 내면의 모습을 소개하는 '별칭 짓기'는 새롭게 만나는 관계개선을 경험하였다. 대부분 같은 지역의 이웃학교의 동료교사이기에 평소 연락과 만남으로 친근하였는데 새로운 이해와 만남은 참 만남이 되고 개방을 위한 용기와 진솔한 분위기로 이끌어 지는 듯 했다.

□ '오뚜기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특성과 연결 지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도록 하였는데 맞벌이 부부로서 갖는 가족 간의 어려움도 있었고 자신이 교사이면서도 자녀의 양육에 온 정성을 쏟지 못했던 안타까움과 특히 자녀가 어릴 때 함께 시간을 갖지 못한 것에 미안함으로 눈물지으시기도 하고 학교 부임 때 어려웠던 행정적 업무와 직원들과의 힘들었던 초반시절을 어렵게 꺼내주시며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감정을 풀고 나니 시원하다고 하신다.

□ 살아가면서 어려움으로 좌절하고 허우적거리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칠전팔기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며 저력이다. 미래의 꿈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에도 힘을 낼 수 있는 이 현재가 소중하게 여겨졌다. 서로 다른 가치관은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수용할 수 있게 하였고 '마음가짐은 행동을 변화시킨다.'를 통해 앞으로 지향하고 싶은 교사상을 선택하여 공언하므로 나 자신의 건강한 미래는 물론 학교생활 뿐 아니라 가정생활 및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신다. 자신감 넘치는 실력 있는 교사로서, 큰 꿈을 가진 비젼 있는 교사로서,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교사로서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다고 하시니 우리 봉사자들에게는 함께 사랑으로 행복을 전도하는 동료를 만난 듯 큰 힘이 되었고 보람을 느낀 시간이었다.

서로의 거울이 되어

상담실 운영자 12기 / 김 효 영

상담실 근무하는 금요일 아침 나는 늘 설렌다.

오늘은 어떤 분들을 만날까?

열시 임박하면 삼삼오오 문을 두드린다.

"어머! 여기가 맞아요?"

큰 강의실을 생각하며 상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던 어머니들의 반응이다.

참석했다는 사인만 하고 다른 일 보려했던 분, 뒤쪽에 앉아 잠시 졸다 갈 생각으로 오신 분, 열심히 강의 듣고 공부하려고 필기 준비 해 오신 분 등등…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오셨던 분들이 끝날 쯤에는 너무 아쉬워하며 자리를 쉽게 뜨지 못하고 다음에 또 언제 할 수 있는지 물어 올 때는 마음이 뿌듯해지고 보람을 느낀다.

'별칭 짓기'를 시작으로 '멋진 나', '나는 몇 점짜리 어머니인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을 통해 그 동안 삶의 무게에 눌려서, 또는 주어진 역할을 수행 하느라 자신을 돌아 볼 시간이 없었던 어머니들은 심성수련 두 시간 반이 모자랄 만큼 많은 이야기를 쏟아낸다.

'별칭 짓기'는 과거나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자연 속에 있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치 산과 들에 있는 것처럼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한다. 자신을 잠시 잊고 있었노라고 하면서 잊고 있던 자신을 생각하고 표현하는 이 시

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한다. 단순한 프로그램 이지만 한사람, 한사람 소개해 나가면 어느덧 동화 되어 친근감을 느끼고 다양한 별칭들을 보며 공감하기도 하고 재미있어 하기도 한다.

'멋진 나' 프로그램은 자신의 삶을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생각 하고 그 안에서 가족 소개, 가장 힘들었을 때, 마음에 남는 말 한마디, 소중한 것, 앞으로의 나를 정리해본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진솔하고 많은 이야기를 한다.

'가족 소개'는 앞에 수식어를 붙여 소개하게 하는데 자신이 남편을, 아이들을 그동안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지 수식어를 붙여 소개하며 스스로도 놀라워한다. 늘 아이들에게 잔소리만 하고 사랑 표현을 못했는데 생각해 보니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한 마음이었고 남편과 늘 티격태격 했는데 소개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 고맙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며 미안해하던 참새님, 첫 아이를 출산 후 열흘 만에 하늘나라로 보냈지만 그 아이를 가족에서 뺄 수 없다며 가족으로 소개 하신 기린님, 재혼 가정 이라며 남편의 자녀와 자신의 아이 모두 소개 하신 흔들바위님,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해서 많이 미웠다는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눈물님, 3년간 묵묵히 병간호 해주고 아이들과 살림을 도맡아 해준 남편과 아파서 온갖 짜증과 못볼꼴을 많이 보였는데도 엄마 없인 못산다고 하는 아이들이 고마워 평생 갚으며 살겠다는 가시나무님 등이 기억에 남는다.

처음의 어색함은 어디로 가고 자신에게로 또 분위기에 몰입하는 모습이 인간적이면서도 성숙함이 느껴진다.

'힘들었을 때'는 대부분 시댁과의 갈등, 아이 양육 문제, 돈 문제, 남편과 성격이나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을 이야기 한다.

여성들이 친정과 시댁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려고 노력 하지만 남편의 협조와 이해 없이는 힘들고 아이 출산과 양육도 마찬가지다.

특히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겪은 문화 차이, 시댁의 냉대, 타국에서의 외로움, 음식적응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모두 안쓰러워하며 여자로서의 공감대로 감싸주고 격려해 준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두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한다. 한국말이 서툴러 젊은 이웃에게는 말 붙이기가 겁나서 옆집 할머니에게 살림하는 것과 말을 배웠다는데 말투가 영락없는 할머니 같아 힘들었던 이야기 하는데도 모두 울다 웃다했던 기억이 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아이가 다치거나 아파서 놀라 병원으

로 뛰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아이가 장애가 있을 때 엄마는 마음과 몸이 다 힘들지만 그 아이가 주는 또 다른 기쁨이 있어 견딜 수 있고 감사하다고 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을 겪을 때는 자신만이 힘겹게 살아온 것 같아 외롭고 슬프지만 다른 사람들도 비슷비슷하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심성수련을 통해 느끼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들으며 삶의 지혜를 배운다.

남들에 비해 비교적 순탄하게 살아온 분들은 다른 사람의 힘들었던 경험담을 들으며 감사함과 겸손해짐을 느끼고 앞으로 자신의 여유로움을 나누려고 노력 해야겠다고 한다.

서로의 진솔함 속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은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든다.

'마음에 남는 말 한마디'를 통해 순간에 스친 말이 기억되어 아름다운 추억이 되거나 평생의 교훈이 되기도 하고 또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진심 어린 "미안해" 라는 말, "엄마 없이는 못살아", 인천에서 제일 예쁘다. 넌 할 수 있어, 정말 애썼다, 고맙다고 했던 말 등 존중 받는 기분이 들거나 인정받는 말은 기억 할수록 기분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한다.

반면 넌 맨 날 왜 그 모양이냐, 당신만 보면 짜증나, 헤어지자, 네가 한 게 뭐있냐 등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말은 상처가 되고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 같다. 그 외에 강의나 책에서 감명 받았던 글귀나 누군가에게 들었던 좋은 글귀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맞아 떨어질 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이렇듯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는지 느끼며 앞으로는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야겠다고 한다.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건강, 신앙, 나 자신 등이고 그 외 돈이나 인맥, 시간 그리고 사랑, 어려서부터 써 온 일기장, 남편과 연애시절 주고받은 편지, 배려, 자연, 추억이 담긴 사진, 친구 등이다.

가족은 누구나 소중하니까 그 외에 소중한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해도 그래도 가족 밖에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앞으로 나는'

대부분 가족 단위의 행복과 계획을 이야기 한다.

사랑스런 아내로, 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로, 인정받는 며느리로 살고 싶다고 하고 또 여자로서나 개인적인 삶도 포기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도 한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향상 시켜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사

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서 자신의 일을 갖고 싶고, 인간적으로 성숙해져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도 한다.

'나는 몇 점짜리 어머니인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엄마로서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고 평가해 보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채점 결과에 대해 신경 쓰는 것 같다.

"엄마의 역할에 대해 어느 누구도 평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스스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 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존재가 있나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부모로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이 심성 바르게 잘 자라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 드린다.

심성수련이 끝난 후 소감은

- ◆ 나를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고 돌아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질 않는데 이런 시간이 있어 너무 행복하고 속이 시원해진 느낌입니다.
- ◆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속에서 '나' 라는 존재, 가족을 다시 돌아보고 소중함을 느끼게 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 ◆ 강의실에서 울려 퍼지는 교육이 아닌 내 자신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내성을 듣게 해주신 자리를 같이 한 학부모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 아빠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주세요.
- ◆ 아이를 위해 왔지만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 이었습니다. 나의 삶을 더 예쁘게 꾸미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 ◆ 꿈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날들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두근거려 본 적이 언제였는지 까마득합니다. 이이들이 "엄마는 꿈이 뭐야?" 물을 때 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 곳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내일의 새로운 희망을 꿈꿔봅니다.
- ◆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며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길 가면서 예쁜 꽃 있으면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며 그리고 때론 비도 맞으면서…
- ◆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가져 본 귀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내가 잊고 있던 내면 깊숙이 숨겨있던 작은 생각이나 마음들을 꺼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끝난 후 소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일상 속에 묻혀 있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변을 다시 생각해 보고 주관적인 삶을 객관적으로도 점검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심성수련이 아닐까 생각 한다.

학부모 심성수련을 진행 하면서 나 자신도 많은 깨달음을 얻고 생각의 폭이 넓어져 성숙해진 느낌이고 소중한 경험이다.

그 동안 만났던 분들께 낯선 분위기에서도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다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가족과 함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눈을 뜨다

6기 / 지 금 숙

1. 들어가며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외치는 '대~한민국'.

남아공 월드컵의 열기까지 더해져 올해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뜨겁게 느껴진다. 그 열기에 젖어든 여름의 공기를 가르고 아버지들은 상담실을 찾아주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쁘고 고되어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대다수의 모습 아니던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아버지에게는 그런 여유를 떠올리는 것조차 '사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기꺼이 시간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아버지들을 바라보며 활동을 이끌어 가기 전의 마음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 본다. 이번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2. 활동 내용

우선 마음의 긴장을 놓아 주기 위해 '별칭 짓기'를 진행하였다. 이 활동이 사회적 지위에 따르는 호칭에 익숙해졌을 참가자들에게 자유로운 느낌을 안겨주지 않았나 싶다. 지금 여기에서 만큼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이 새겨진 이름들을 벗고 좀 더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두 번째로 '멋진 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다.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반복되어 지루한 일상을 잠시 지워버리고 차분히 앉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니, 아버지에게도 표현하고픈 감정과 생각들이 마음 안에 꼭꼭 담겨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버지가 스스로를 평가해 보는 프로그램인 '나는 내 자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진행하였다.

점검표에 나열된 12개의 항목을 통해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내용이었는데, 각 항목의 내용을 차근차근 짚어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아버지들에게서 당황하는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도 쉽게 답을 해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 자기의 모습에 놀라워하며 자녀에게 매우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나누던 아버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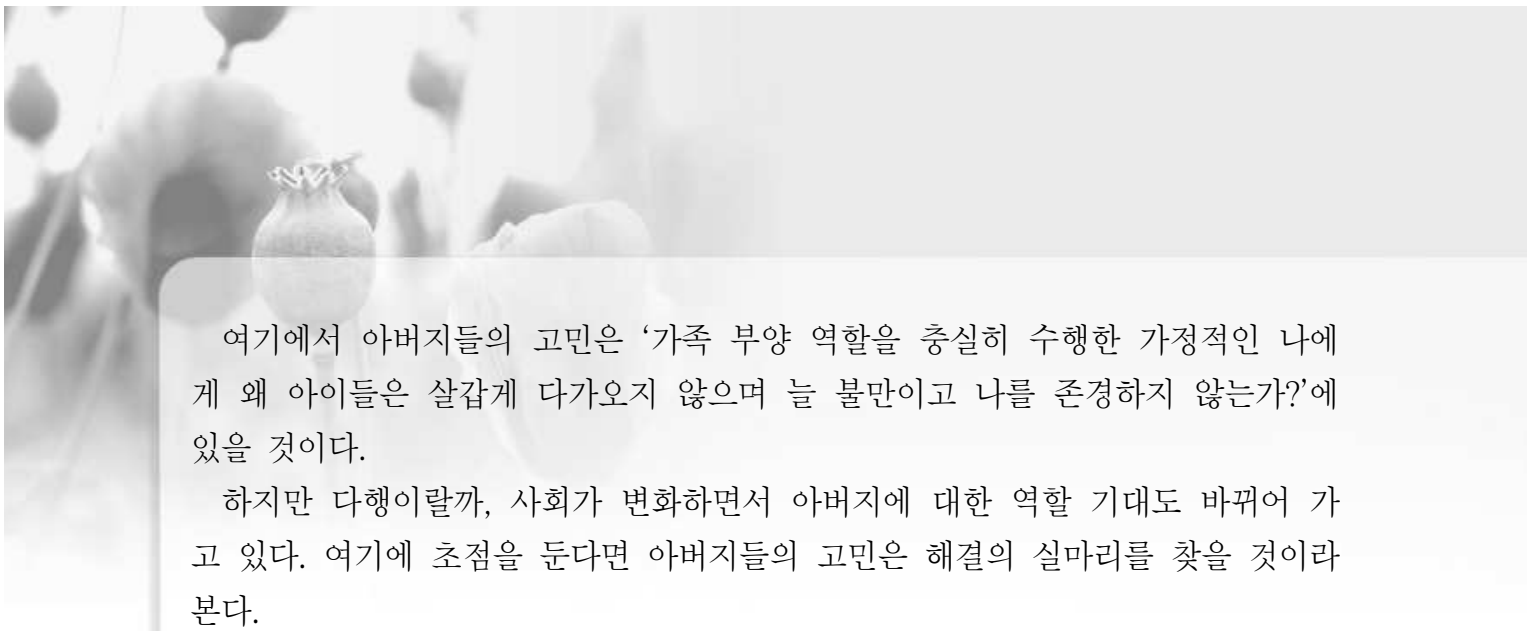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에 아버지로서 누구보다도 자녀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욱 컸다는 것이 아버지들의 소감이다.

마지막으로 '맹인과 달팽이'라는 활동으로써 마무리를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인이 1조가 되어 한사람은 안내자 역할, 다른 한사람은 장님과 벙어리 역할을 맡아 신뢰와 협동심에 의지하여 달팽이집을 통과하는 프로그램이다. 안내 역할을 할 때에는 자신의 마음대로 누군가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장님이자 벙어리 역할을 할 때에는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실제 느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를 이끌어가는 부모, 특히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어렵지만 자녀로서도 아버지를 따르는 데에는 전적인 신뢰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었다고 한다.

3. 활동을 마치며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아버지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바로 가족의 '생계부양'이었다. 이로 인해 직업에서의 성공이 곧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가 되었고, 그 동안 가족 안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여기에서 아버지들의 고민은 '가족 부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가정적인 나에게 왜 아이들은 살갑게 다가오지 않으며 늘 불만이고 나를 존경하지 않는가?'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이랄까, 사회가 변화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역할 기대도 바뀌어 가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둔다면 아버지들의 고민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 본다.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은 부부중심의 핵가족 형태로 변화되어 오면서 가족원들 간의 정서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버지에게도 자상한 아버지, 더 나아가 '친구처럼' 친밀한 아버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아버지들은 '돈을 많이 벌어오는 능력 있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자녀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친밀하고 자상한 아버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

아버지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하기에 앞서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녀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오늘 있었던 '아버지 심성수련' 활동이라 생각한다.

활동 소감을 나누는 동안 들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지금도 귓전에 맴돈다. "'나는 내 자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프로그램의 활동자료를 파일에 끼워 늘 가까이 두면서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에 스스로를 점검하는 표준으로 삼겠다."는 말씀이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아버지가 다 같을 것이다. 다만 그 방법을 찾지 못해 갈등을 빚고 있을 뿐… 누군가 '알면 사랑한다.'고 하지 않던가.

오늘의 활동을 통해 진심으로 자녀를 알아가고 또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 새롭게 눈을 뜬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음에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다만, 안타까웠던 것은 대부분 직장의 일과 시간 중에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보다 많은 아버지들이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들의 참여가 가능한 시간에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제 가슴 속에서 바람이 막 지나가요!!

7기 / 이 문 희

수업시간 중에 집중력이 떨어짐. 학급에서는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음. 언행이 다소 거칠고 폭력적인 경향이 있으며 항상 불만에 차 있고 태도가 불손함.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함.

K중학 2학년에 재학 중인 정미(가명)의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의 상담실에 제출한 '개인 상담 요청 신청서'에 적힌 정미의 문제 유형이다.

정미는 무슨 문제로, 한참 잠이 많은 나이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걸까?

상담실에서 정미를 기다리며 궁금했다.

1차 상담

상담실에 들어서는 정미는 머뭇거리며 무척 불편해 보였다.

상담시간이 점심시간 후 바로 와서 였을까? 정미의 치아 사이에는 고춧가루가 있었고, 어깨까지 내려온 두발은 헝클어져 있고, 교복 블라우스는 얼룩이 여기저기에 묻어 있었으며 시선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고 뭔가를 경계하며 분노에 찬

눈빛이 역력했다.

먼저 본 상담원이 정미를 도와주고자 한다는 것과 원치 않으면 정미 쪽에서 상담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정미는 상담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먼저 학교 급식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정미야, 학교 급식 맛있어?"

정미는 본인에 관한 질문을 예상했었는지 거리가 먼 질문에 상담원을 응시하더니

"아뇨." 라고 짧게 대답한다.

"맛이 없구나."

이에 대한 정미의 반응은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으음… 정미는 어떤 반찬이 나오는 게 제일 좋아?" 라는 질문에

"다 그냥 그래요…" 라고 말끝을 흐린다.

이에 연관 지어 집에서의 밥상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레 정미의 가족 구성으로 화제를 옮겼다. 정미는 가족 이야기를 먼저 술술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상담원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지도 않았다.

- ▸정미의 가족은 아버지/어머니/동생(초등 5학년)
-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회사에 다니심.
- ▸정미가 4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으심.
- ▸요즘에는 아버지가 음식을 준비하시고, 정미는 청소를 맡음.
- ▸집안 일 중에서 가장 하기 싫은 것은 화장실 청소임.
- ▸동생은 이런 상황에 불만을 얘기하다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매를 맞기도 했었음.
- ▸빨래는 각자가 해결함.

'도대체 정미 어머니는 왜 이렇게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 본 상담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결혼 초부터 원래 그랬던 것도 아니고… 뭘까? 의혹은 점점 커져갔다.

더구나 정미 본인도 어머니가 왜, 무엇 때문에 변했는지 알 수가 없고, 이 문제로 어머니와 이야기를 해 본적도 있지만 어머니는 전혀 변화가 없으셨단다.

정미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을 흘렸는데, 여느 학생들처럼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었다.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곤 했다.

정미에게 휴지를 건네주면서 정미의 손을 가만히, 그저 가만히 잡아주었다.

"정미야, 근데… 정미는 왜 우는 것까지 힘들어 보일까?"

"울면 안 되니까요."

"창조주가 우리에게 속상하고 슬프면 울라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해줬는데,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구나?"

"전 그러면 맨날 맨날 울기만 해야 하는데요?"

차라리 내가 울고 싶었다.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힘들면 '울면 안되는거' 라고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워 놓은 건가?

아버지에 대한 정미의 감정은 불쌍하다는 것과 불만이 함께 비례했다. 정미와 동생 때문에 힘이 드신 건 알겠지만, 자신과 동생을 함부로 대하는 아버지가 싫다고 했다.

정미의 장래 희망을 물으니, 전에는 작가가 꿈이었으나 이제는 아무런 꿈이 없다고 했다.

다음에 상담원을 한 번 더 만나겠느냐? 는 질문에 그러겠다고 했다.

아직은 정미가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문제에 접근하지 않기로 했다.

정미에게 "선생님이 어머니를 만나보면 어떨까?" 라고 했더니 싫다는 말없이 어머니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주었다. 정미에게 과제를 내주었다. <지금은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오도록 했다.

2차 상담을 앞두고

2차 상담에 앞서 정미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긴장하는 목소리가 역력했다. 본 상담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정미가 요즘 아주 많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정미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왜 자신이 가정 일에 완전히 손을 놓았는지 설명했다.

- 5년 전부터 가정 경제가 무척 어려워졌음.
- 이 때, 정미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기자고 했을 때, 실망이 너무 컸음.
- 아버지는 보증을 잘못 서서 가족을 힘들게 했으며, 음주 후 폭행이 잦았음.

▸어머니 귀가 시간이 늦는 이유는 회사 업무가 끝나도 일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자주 있음.
▸정미도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잠든 이후에 귀가하려 함.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보니 부부의 사이가 멀어졌고, 현재는 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태임.
▸정미에게는 이혼 사실을 반드시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함.

정미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은 했지만,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며 늦게나마 가정으로 귀가하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미의 이야기 중에 4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변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시점이구나' 라는 계산을 할 수 있었다.

일단은 정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다. 같은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처음에 '고아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공감해 주었다. 또한 이미 이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려 애쓰는 어머니를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정미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 줄 아세요? 정말, 정미를 사랑하신다면 정미의 어려움도 헤아려 주세요." 라고 하자 어머니는 다시 한 번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정미와 2차 상담이 약속되어 있음을 알리고, 다음에(본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 상담실로 방문하시라 했더니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했다.

2차 상담

정미의 외모에는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얼굴 표정은 무척 밝아졌고, 첫 날의 경계심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정미가 먼저 인사를 건네며,

"선생님, 엄마가 쪼끔 일찍 들어오세요." 라고 했다.

"오, 그래? 잘 됐네. 그래 요즘엔 몇 시에 귀가하시는데?"

이에 대해 정미는 12시에 들어오실 때도 있고, 그 전에 들어오실 때도 있단다.

웬만한 가정 같으면 이 시간에 주부가 귀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만, 정미의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좋아진 귀가시간이 12시 경이었다. 그러나 이를 정미에게 그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

▸상담원과 어머니가 전화통화를 했었다는 것
▸어머니가 정미와 동생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

▸어머니 입장에서도 힘든 일이 많이 있다는 것

▸지금은 말하기 어렵지만 정미가 성인이 되면 차차 이야기 해줄 수 있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정미가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문제를 물어보았다. 어머니가 매일 늦게 들어오시면, 거의 아버지와 부부싸움으로 연결되기에 '오늘도 싸우시겠구나.' 하는 불안함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어머니가 들어오실 때까지 즉, 부모님이 싸움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잠이 오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싸우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곤 한단다.

세상에! 어떤 집에서는 이 늦은 시간이면 학생은 졸려서 눈을 비비면 어머니는 한 글자라도 더 공부시키려 간식을 챙겨주시면서 애쓰는 가정이 있건만, 이런 가정이 정미에게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이다.

"정미야, 그럼 부모님은 매일 싸우시니?"

"싸우시지 않는 날도 있긴 해요. 그러면 이제나 저제나 또 언제 싸우시나 마음이 조마 조마하다보면 잠이 들곤 해요."

"부모님이 싸우시면 네가 두 분을 말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싸우시건 싸우시지 않건, 네가 잠이 들어버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무 차이는 없겠지요."

"그럼, 정미는 자버리면 되는데, 부모님 걱정 때문에 잠을 손해 보는 거네?"

(정미는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그~렇죠…"

"정미는 이 아까운 청춘을 많이 손해보고 있어서 선생님 마음이 안타까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10년 봄인데…"

"…"

"정미야,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놔버리자. 부모님 사이에서 힘들어 하지 말고…"

"…"

정미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다.

지난 시간에 과제로 내 준 정미의 장래 문제로 화제를 돌렸다. 아직 마음에 와 닿는 일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차차 찾아보자고 하였다.

귀가 후에는 무얼 하는가? 물으니 거의 컴퓨터 오락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컴퓨터 게임은 제법 잘한다며 스스로 으쓱해 보였다.

다음 상담에 또 만날까? 하고 물으니 쾌히 또 만나겠다고 한다.

3차 상담을 앞두고

정미 어머니가 지역 상담실을 방문하기로 한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으셨다.

휴대전화를 하니, 회사일이 바빠서 도저히 시간 내기가 어렵다고 했다. 어쩔 수가 없었다. 전화 상담을 할 수 밖에는…

지난번보다 어머니는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했다. 정미가 유치원 다닐 때에는 일주일 식단표를 받으면, 가정에서는 유치원에서 주는 점심식사와 겹치지 않는 식단을 차렸었고, 정미에게 과일 하나를 주어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토끼 모양이나 하트 모양으로 과일을 깎아 주곤 했단다.

이런 정성스런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었으면 요즘처럼 힘들게 지내시는지 그 마음을 읽어주었다. 그리고 정미 또한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는 아이로 크고 있으며, 밤에는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잠자리가 아니라 불안한 마음에 마치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기다리는 듯이 그토록 힘든 상태임을 알려 주었다.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미 부모님임을 말씀 드렸다. 두 분이 함께 상담실로 방문하시기를 권했지만 완강하게 거절하셨다.

"정미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상담실로 오시는 것이 정 불편하시면 정미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오시면 어떨까요?"

이 역시 거절하셨다. 단지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할 뿐이었다.

3차 상담

1. 2차 상담에 비해 밝아진 얼굴 표정은 물론이고, 두발도 단정해졌다.

어머니는 아직도 귀가 시간이 늦지만 전보다는 많이 빨라지셨다며 웃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정미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 바람이 막 지나가요. 답답했던 덩어리가 쑥 빠져 나갔어요."

라고 했다.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정미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중학 시절의 봄날'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부모님 문제는 이제 두 분이 알아서 하시라고 접어 두겠단다.

정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가장 두렵냐?"고 물었더니 지체 없이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거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가 전화상담 때, 왜 그토록 이혼한 사실을 정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정미는 아직도 자신이 무얼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단다. 한 때는 작가를 꿈꾸며 소녀가 부모의 불목과 무책임으로 장래에 대한 꿈마저 잃어버리고 이젠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하는지 조차 쉽게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컴퓨터의 도움을 받을 거라고 했다.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분명코 자신에게 맞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우선은 수행평가 점수부터 올리겠단다.

앞으로는 정미가 속상할 때나 슬플 때는 소리 내어 실컷 울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미의 상담을 일단 종결했다.

아쉬운 것은 정미 부모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 같은 느낌이 남아 있어서 '언제든 상담을 원한다고 상담실에 말씀드리면, 정미를 만나줄게.' 라고 약속했다. 또한 학교의 상담교사의 위치가 아니다보니, 비협조적인 부모님을 대하는 자세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개인 상담을 신청한 학생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쉬운 느낌이 있다고 정미의 상담을 계속 지속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k중학교는 학교의 사정상 2주에 한 번씩 상담을 해주고 있다 보니, 지속상담으로 연결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만나는 간격이 너무 긴 것도 사실이다.

언제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상담원으로서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내 위치를 다시 한 번씩 되돌아보고는 한다. '봉사자라는 미명하에 혹여 나는 내 가정에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정미의 한마디에 다시 힘을 얻는다. "선생님, 제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 바람이 막 지나가요."

좋은글

Chapter 2

협력학교 참여사례

▶ 개인상담 사례 / 인천여중

▶ 엄마, 아빠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고 싶은데? / 류희숙

▶ 심성수련을 다녀와서 / 보건교사 박혜숙

▶ 삶속에서 배우는 엄마교육 / 인천석천초 1-5반 설지인 엄마 김현숙

▶ 초등학교 심성수련활동 소감문

▶ 중학교 심성수련활동 소감문

▶ 고등학교 심성수련활동 소감문

▶ 어머니 심성수련활동 소감문

▶ 보건교사 심성수련활동 소감문

개인상담 사례

◈ **보 고 자 :** 인천여자 중학교 Wee Class

◈ **내담자명 :** 박○○

◈ **상담일시 :** 2009년 9월 14일 ~ 2009년 12월 22일까지

◈ **상담회기 :** 총25회기(학부모상담 10회기 포함)

◈ **내담자의 기본정보**

·성명 : 박○○
·성별 : 여
·나이 : 14세
·학력 : 중2 재학 중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종교 : 무 (천주교 희망)
·취미 : 피아노, 독서
·특기 : 노래
·혈액형 B형

◈ **내담자의 가족관계**

·아버지(대졸, 오산에서 건설 현장소장,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심)
-내담자의 친밀감 : 상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을 나는 잘 못 느끼겠다. 내담자 어머니의 진술에 의하면 내담자가 아빠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함.
·어머니(전업주부,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생활)
-내담자의 친밀감 : 상
-우리엄마는 날 사랑하시고 내 상처를 더 아파하셔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다.
-강하고 자기 주장적이며 낙천적이고 사교적인 편이다.
·남동생(초등학교 6학년)

-내담자의 친밀감 : 중
-말다툼 있음.

어머니가 말하는 내담자 : 짜증을 잘 내고 초등학교 4, 5학년 때 왕따를 당한 경험으로 힘들어 하고 피해의식이 남아 있다. 집에서는 우울해 하지 않는다.

◈ 상담동기 및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

초등학교 때 왕따 경험 있었으며 지금은 우울하고 본인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고 하찮은 존재인 것 같으며 친구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 속상하고, 환청, 환시증세, 자살, 자해 충동도 있다.

◈ 상담자의 초기 진단 및 상담의 목표설정

1. 심각한 우울, 환청, 환시의 치료 - 약물치료와 병행
2. 왕따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 치료
3. 대인관계 개선(친구 사귀기)
4. 자존감 증진, 긍정적인 생각 갖기

◈ 상담자의 내담자 관찰

내담자의 인상은 조금 작은 키에 통통한 편이었으며 눈이 동그랗게 크고 얼굴도 통통하게 귀여운 인상이었으나, 표정이 없고 눈에 힘이 없고(CT의 표현은 눈이 풀렸다) 머리도 엉클어져 있고 입술이 마르고 까칠해 보였다. 작은 목소리로 종알종알 이야기를 계속하였고, 언어적 표현력이 좋았으며 또래의 아이보다 생각이 많고 깊은 것 같았다.

◈ 상담과정 요약

초등학교 3, 4, 5학년 때 왕따 당한 경험으로 큰 상처를 가지고 있다. 중1때는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4~5번 상담 받은 적 있다. 늘 우울하고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자신이 하찮은 존재인 것 같고 성적도 잘 나오지 않고 자살할 마음까지 생겼다. 중1때 보다 더 심해졌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엄마에게 죄송하고 CT가 이런 생각하는 것을 엄마가 아시면 CT보다 더 힘들어 하셔서 말할 수가 없다. 친구들이 싫어하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면 더 속상하고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자살방지 카페에 들어가서 질문을 했더니 상담전문

가와 상의하라고 하였고 그곳에서 검사를 했는데 우울증이 심하다고 해서 상담을 하러오게 되었다.

몸이 아프면 자신을 알아줄까 해서 차라리 아픈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자주 아프다. 가족들과 있을 때면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CT표현-가면) 밤에 혼자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면 하루 동안의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그땐 정말 너무 슬퍼서 많이 울고 견딜 수 없어서 죽고 싶은 마음도 든다. 때때로 이상한 것이 보이기도 한다.

아무도 없는데 방문 손잡이가 저절로 움직이기도 하고 귀신같은 것이 보이기도 한다. 때때로 아무도 없는데 CT에게 욕하는 소리 "재수 없어" "눈이 풀렸어"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엄마에게는 속상해 하실까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아빠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멱살 잡히고 심하게 대했던 것을 못 잊겠고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으며 그래서 무서운 존재이다.

수업시간에도 집중 할 수 없고 산만해 지며 공부를 전혀 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들이 싫고 특히 체육시간이 너무 힘들고 싫다.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고 혼자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호소를 자주하였다.

Beak's depression inventory 검사에서 48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SCT검사에서 자살하는 상상을 한다.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자살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때때로 죽고 싶을 만큼 우울할 때가 있고 자살 상상을 한다는 등의 표현이 많은 것으로 보아 심한 우울증이 사료되며 왕따 경험으로 인한 상처가 깊어 친구관계에서도 믿을 수 없어하고 배신당할 것 같은 공상을 하며 친구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를 많이 싫어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카터 칼을 보면 손목을 긋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부모님을 생각하면 할 수 없고 친구들이 싫어하는 것 같거나 째려본다는 느낌을 받으면 살 용기가 없고 두렵다.

◈ 조치내용

CT의 어머니와 상담하여 소아정신과에서 full-battery검사와 우울증 치료받을 것을 권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잠시 입원도 하였다. 퇴원 후에도 약물의 적응과정에서 매우 힘들어 했고 특히 어머니가 CT에게 정신과 약을 복용

하도록 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여 어머니의 상담도 중요하였다. 약물복용, 병원에서의 상담과 Wee Class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하였으나 때때로 친구들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울면서 상담실에 오는 횟수가 많았고, 상담실에 오지조차 못 할 때는 중앙현관 옥상에 올라가서 두 번씩이나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못하고 울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

CT를 15회기 상담하였고 어머니를 10회기 상담하였다. “모든 친구들이 CT를 싫어한다.” “친구가 CT를 왕따 시킬까봐 두려운 염려와 걱정”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인지치료기법을 통해 상담하였다. 초등학교 시절 왕따 경험을 기억하여 게슈탈트치료의 빈 의자 기법의 대체물인 인형에게 말하기 과정을 통해 치료하였다. 상담과정 중에도 우울함이 때때로 생기기도 했지만 웃으면서 상담실에 오기도하고 친구들과 장난도 치고 자신보다 더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지금은 상담실에 잘 오지 않으며 새로운 친구들과 잘 적응하고 있으며 공부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어머니를 통해 전해 듣고 있다. 아쉬운 것은 자존감 증진 과정을 위해 좀 더 상담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엄마, 아빠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고 싶은데?

16기 / 류 희 숙

♥ **1회차(4월 19일/월)**

•가족사항 : 엄마(41세 : 치킨가게/아빠와 함께)
아빠(41세 : 치킨가게/경서동)
언니(대전우송대 1학년)
여동생(가정초 6학년 재학 중)

•엄마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으나 잘 들어주시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고 걱정만 하신다.

•아빠의 난폭한 언어·행동이 은경이의 마음을 더 갑갑하고 두렵게 하는 것 같다(무섭고 없으면 좋을 것 같은 아빠라고 표현함).

•꿈 : '요리사' 외식조리학과에 진학하고 싶다.

•은경이의 마음을 자세히 알고자 대전 언니와 통화하였다.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좀처럼 낯선 번호인지라 받지 않아 문자를 먼저 보내고 겨우 통화할 수 있었으나 흔쾌히 받아주지 않았으며 동생 은경이에 대한 믿음이 적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관심 없는 듯한 말투였다.
그래도 아빠와 엄마에게 은경이의 현재 마음을 잘 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주말에 신발도 사고 머리스타일도 바꾸며 자신의 마음과 분위기를 바꿔보았

으나 여전히 학교에 오기 싫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너무 싫다고 하였다.

•이런 자신의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계속 눈물을 보임.

♥ 2회차(4월 21일/수)

•어제는 상담실에 가는 날이 아니었다. 그런데 은경이는 아침 일찍 학교선생님을 졸라 전화번호를 알아내 자신의 상황을 알리며 상담에 적극성을 보였다.

•1차 상담을 통하여 약속한 행동을 하기 위해 아빠에게 자신의 심정을 말씀드렸는데 화도 안내시고 잘 받아주셔서 너무 놀랐고 이같이 편하게 들어주시니 은경이의 마음도 가벼졌으며 아빠와 엄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제부터는 많이 울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며 매우 밝은 표정을 지어보였다.

•은경이는 봉사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으며 실제로 검암동에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봉사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5/3~5/5일까지의 창의적 재량활동기간에 엄마·동생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며 나에게 허락을 받아달라고 하였다.

(1차 담임선생님께서 은경이의 올바르지 못한 학교생활태도에 대한 안 좋은 모습으로 인해 반대하셨다고 하며 내심 기대하는 눈치를 보였다.)

•창의적 재량활동에 관한 담임선생님과 잠시 전화로 은경이의 생각을 말씀드렸으며 아빠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인하여 살짝 그은 손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 3회차(4월 29일/목)

•은경이는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인한 원만한 교우관계가 형성되지 못함으로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싫어서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는데 오늘은 담임선생님께서 여행을 보내주시면 자기도 수학여행은 가겠다고 하였다.

•유일한 친구인 별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매우 고민하고 근심어린 표정을 지어보이며 수학여행가서 되도록 별이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겠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려달라고 하였다(가명사용).

•별이와 함께 어울려 다녔다는 이유로 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마음이 무거움(별이 어머니께서 집에까지 찾아와 아빠에게까지 험하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였다).
•방과 후에 아빠 가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로 결정함(부모님 모르게 친구 진이에게 돈을 빌린 일).
•길병원 정신과 약 복용 중
약을 먹으면 생동감이 생겨 뭔가 하고 싶은 충동이 발생되기에 약 복용을 끊을 수 없다고 한다.
•은경이의 현재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 할 정도로 상담에 대한 거부하는 모습이 없었으며 아빠와의 관계 회복에 진전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밝은 표정으로 보아 초기 상담과정에서 관찰한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리상태가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아빠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은경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때리거나 혼내기 일쑤였던 아빠에게 정중히 바른 자세로 존댓말을 쓰면서 은경이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려보라고 권했던 것을 실천한 후의 모습이었다.

은경이도 자신의 아빠가 그렇게 부드럽고 얌전한 아빠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다며 계속해서 눈을 크게 떠 보였다(은경이가 아빠에 대한 표현).

♥ 4회차(5월 7일/금)

•4교시 상담일정이 있었으나 상담실에 방문하지 않아 통화를 시도한 결과 은경이는 길병원에 진료를 예약한 상태였고 진료를 받은 후엔 곧바로 조퇴한 후 바로 엄마와 함께 가족여행을 간다고 하였다.
•전화 목소리는 아주 밝고 씩씩하였으며 여행 간다는 생각에 많이 들떠 있는 듯한 목소리로 느껴졌다.
•차기 상담은 5월 12일 4교시에 4차 상담을 하기로 하였다.

♥ 5회차(5월 12일/수)

•방과 후에 아빠가게에 들러 설겆이 등 손쉬운 일을 도움으로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지고 있었다.

•무섭고 너무 싫었던 아빠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며 따뜻하게 대해 줌으로서 아빠 엄마에게 드릴 선물을 언니와 동생과 함께 이벤트로 준비한다고 자랑하며 매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의 자신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후회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얼른 커서 아빠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무섭고 없으면 좋을 것 같은 아빠라는 표현(4/19일)에서 함께 여행하고 싶은 아빠, 아빠에게 뭘 선물해 드릴까를 고민하는 은경이의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였다.

•2차 상담 때 너무 속상해서 머리를 잘랐으며 왼쪽 손목을 상처(?)낸 자신이 왜 그랬는지를 후회한다며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천천히 이성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다고 하였다.

•매우 좋아진 은경이와의 상담을 종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연하고 지혜롭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삼성에 들어가 돈을 많이 벌어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였다.

•차후에 혹시라도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온다며 이제는 유림이 스스로 상담실을 찾겠노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혼자 견디어 보겠다고 차후 상담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상담실 문을 나서면서

"선생님!! 엄마, 아빠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려면 얼마를 모아야 할까요?"

•없었으면 좋겠다던 아빠에게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변한 것이다.

♥ 6월 어느날!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은경이는 비식 웃으며 친구에게 나를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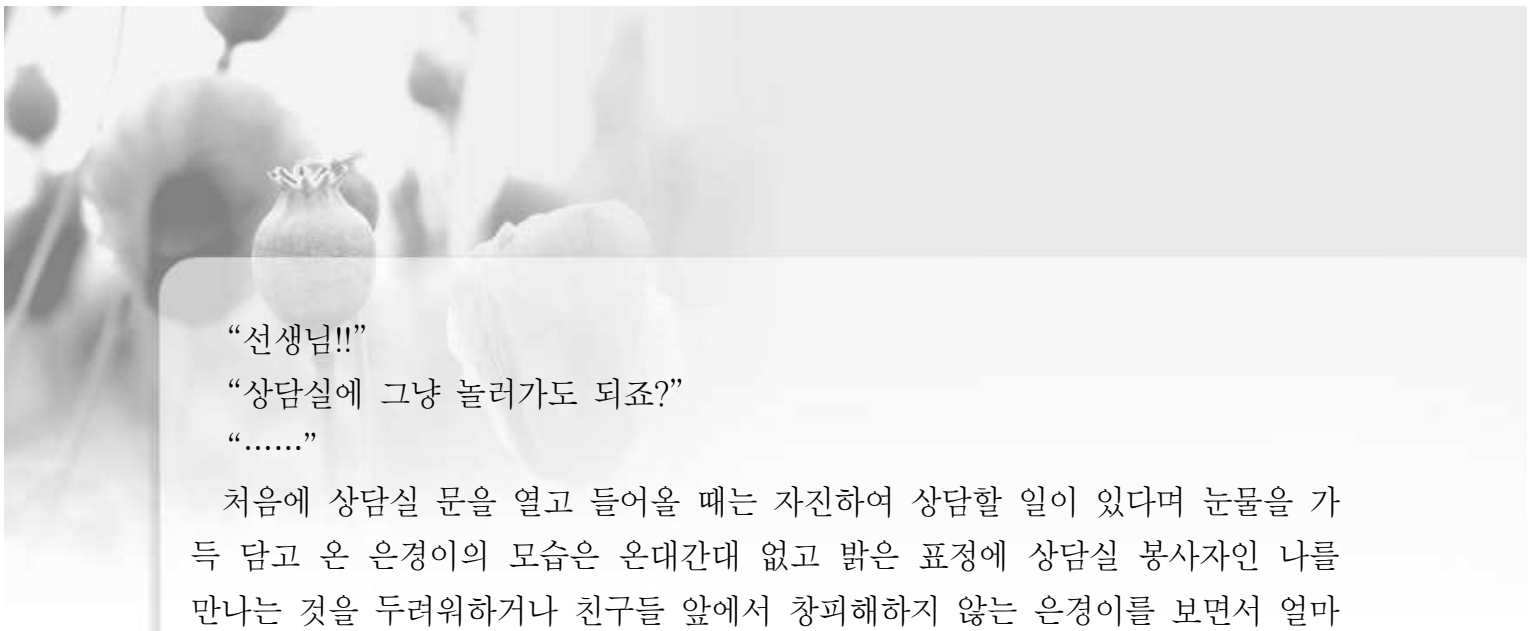
친구들 앞에서 나에게 인사를 하는 은경이에게 누구셔? 라고 묻자…

"야~ 몰라?"

"2층 상담선생님이시잖아!"

곁에 서있던 친구들이 일제히 안녕하세요?

깔깔 거리며 웃는 은경이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교문 밖으로 향하는 나에게 은경이가 소리 질렀다.



"선생님!!"

"상담실에 그냥 놀러가도 되죠?"

"……"

처음에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자진하여 상담할 일이 있다며 눈물을 가득 담고 온 은경이의 모습은 온대간대 없고 밝은 표정에 상담실 봉사자인 나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하지 않는 은경이를 보면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던지……

아빠가 좀 더 일찍 아니 은경이가 좀 더 일찍 아빠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떨어 놓을 수 있는 기회만 있었더라면 가출을 하거나 손목을 긋고 긴 머리를 짧게 자르는 후회는 없었을 텐데……

그래도 처음과 많이 달라진 은경이를 편히 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다.

심성수련을 다녀와서

보건교사 / 박 혜 숙

"어쩌다 그리 많이 다쳤어? 많이 아팠겠구나?"

"계단에서 뛰어내려오다 그랬어요. 흐흑…"

오늘도 뛰다 다친 아이들, 열이 나는 아이들, 마음이 아픈 아이들, 아픈 친구를 데리고 온 아이들에 보건실은 시끌벅적 부산하다.

보건실을 찾는 아이들 처치, 상담, 보건교육에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던 지난 4월 학교일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 사실 '심성수련'은 결코 반갑지 않았고 부담이 되었었다.

학교를 오후 내내 비워야 하는 부담감에, 학교 보건실은 오로지 보건교사 한명에 전교생이 이용할 수 있고 늘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현장이기에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다.

하지만 내 자신이 이번 기회에 심성수련을 통해 한 가지라도 얻어 온다면 아이들에게 좀 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 기대도 되었다.

이런 두 가지 마음으로 오늘 드디어 정해진 심성수련 활동을 할 수 있는 '북부도서관'으로 향했다.

날씨는 흐렸지만 산에서 불어오는 아카시아 향은 초여름의 상쾌함을 느끼게 했다. 북부 상담실에서 상냥하게 맞이해 주시는 김경희 상담선생님을 만나면서 오늘의 활동이 기대되었다.

따끈한 차 한 잔과 각 학교 보건선생님들 8명이 한자리에 앉게 되었다.

같은 서부에서 근무하는 초등학교 보건선생님들이지만 사실 이렇게 가까이 가족처럼 앉아 정답게 활동을 할 만한 기회는 없었다.

둥근 원탁에 동그랗게 둘러앉아 심성수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첫 번째로 '별칭 짓기'로 시작을 하였다.

자기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앞으로의 인생방향, 꿈이 담겨진 그런 별칭을 지으라는 선생님의 설명에 사실 처음에는 모두들 어색해 하면서도 즐거운 표정으로 진지하게 별칭을 짓고 그에 포함한 음일을 정리해 보았다.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별칭에 대해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모든 일에 욕심을 내고 싶고, 열정을 갖고 배우고 싶어 하는 '스펀지' 선생님, 마음이 넉넉해서 남을 배려하고 퍼주고 싶어 하는 '달덩이' 나, 늘 미소를 잃지 않으려는 '미소' 선생님, 미소가 가장 장점이고 늘 아이들에게 미소를 전달해 주는 '미소천사' 선생님, 처음 학교에 발령 받았을 때의 열정을 잃고 싶지 않다는 '초심' 선생님, 산과 자연을 자주 벗 삼아 활력을 얻어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하이디' 선생님, 늘 아이들에게 행복한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은 'I'm happy' 선생님,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긍정' 선생님 등 의미 있고 공감 가는 별칭의 깊은 속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숨어있던 내 자신을 발견할 뿐 아니라 옆의 다른 동료교사들의 인정과 삶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같은 직업을 가진 탓인지 모두들 바라는 마음은 비슷했다.

마음과 몸이 아파 도움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따뜻하게 감싸주려면 우리들 마음이 먼저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자세, 희생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는 자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는 자세, 행복한 마음을 스스로 갖는 자세, 늘 미소를 잃지 않는 여러 선생님들의 마음은 곧 우리 자신들 마음인 것을 알았다.

우리들 얼굴, 성격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직업, 남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주는 그런 직업을 같다보니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가 같다는 것에 우리들은 함께 공감하고 서로의 마음과 자신들의 마음을 읽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다.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오뚜기의 삶' 자신들의 과거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가장 힘들었던 일, 잘 하는 것, 소중한 것, 앞으로의 나, 마음에 남는 말 한마디 코너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는 내용이었는데 모두 차분하게 정리해 나가는 모습은 숙연하기 까지 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표를 하는데 참 다양한 인생의 모습, 고민, 각오, 의미 있는 말들이 오갔다.

직업을 선택하면서 고민한 점, 교통사고로 아파 오랜 병상생활을 한 경험,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 계기,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 자신의 여러 가지 특기 등 다양한 모습들이 보였다.

내 모습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단면을 볼 수 있었던 프로그램 이었다.

각자 개성은 다르지만 모두들 따뜻한 마음, 진지한 삶의 자세, 행복, 사랑을 학교 아이들, 가족들에게 베풀고 사는 모습 등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에 연수 때, 회의 때 가끔 보았던 보건교사들이 아닌 모습, 친구, 가족 같은 그런 친근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그리 길지 않은 이번 심성수련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하다. 사실 보건교사는 늘 아프고 다친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 찡그린 아이들의 얼굴을 많이 대한다. 아무리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런 환경에 오래 지내다보면 어느 날 문득 우리 자신의 마음까지 우울해져 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보건실을 찾는 아이들, 보건교육 시간에 만나는 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해 질 수 있기에 이번 심성수련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몇 가지 맘에 떠올려지는 것이 있었다.

매일같이 보건실을 습관처럼 찾는 ○○에게 사무적으로 대한 일은 없었는지?

늘 아픈 아이를 진심으로 내 자신만큼 진심으로 따뜻하게 처치를 해 주었는지?

보건교육 시간에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열정을 같고 교육했는지?

보건실을 찾는 아이들에게 작은 상처의 말이라도 무심코 던진 일은 없었는지?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내일에 대한 반성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후에 학교에서 나올 때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 인생의 단면, 꿈, 열정을 엿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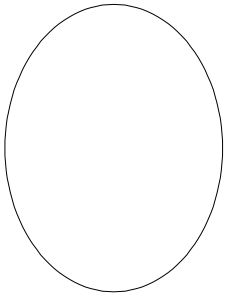
서 에너지를 얻었고 공감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오늘 얻은 무한한 행복 충전 에너지를 학교에 돌아가면 나를 찾는 아이들에게 두 배로 부풀려 전달해 주고 싶다.

한 가지 더 욕심을 내 본다면 이런 좋은 심성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우리 보건교사만이 아닌 담임교사, 상담업무를 받고 있는 윤리부 선생님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래본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유익한 심성수련 프로그램 활동을 해주신 북부상담실 김경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삶속에서 배우는 엄마교육



인천 석천초등학교 1학년 5반
설지인 엄마 김현숙

2010년 5월 27일

화창한 날씨, 마음마저도 가볍게 강의실 문이 열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넓은 강당에 앉아 일률적으로 듣는 강의가 아닌 같은 학교 1학년 소수의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그룹 수련임을 알고 시작이 조금은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일관성 있게 내 아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교육의 장', 문뜩 우리 집에서 요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뒤돌아보았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새로운 생활에 나름 잘 적응해 나가는 아이에게 엄마인 내가 그 역할을 적당히 잘 하고 있었는지 너무 관여하고 그로인해 아이가 힘이 든 건 아닌지, 밀려드는 생각과 불안에 스스로를 또 반성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나를 별칭으로 소개 하는 시간…

'나 나를 뭐라고 소개하지? 어떤 별칭이 나에게 어울리는 것일까?'

항상 처해진 현실에서 아이들과 분주하게 보냈던 나였기에 나를 돌아볼 시간들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 얼마나 떨린 일인지 생각도 해보며 아이들을 마음으로 격려해 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보며 멋진 나를 만들어 보는 시간…

한 장의 종이에 나의 가족, 가장 힘들었던 시간, 나에게 영향을 준 말, 소중하게 생각 하는 것, 나의 미래 등을 써서 함께한 모든 분들과 발표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울어주고 맘을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발표를 하고 또 들으면서 마음에 쌓여 있던 우울함, 불안감, 긴장감들이 해소되고 마음이 정화되는 듯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함께한 분들과 한걸음 더 마음이 가까워짐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도 아이들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아이들 스스로가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내 자녀에게 나는 몇 점의 부모인가를 평가해 보는 시간… 100점의 부모는 없다는 말씀에 위로를 삼았지만, 엄마인 내 스스로가 참 나약하고 부족한 부모임을 점수로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점들을 채워나가야 할지도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최고조기, 사춘기, 부모와의 관계가 팽팽한 시기가 아니기에 강의를 들으며 아직은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감사한 느낌과 조금 더 아이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감성이 풍부한 엄마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좋은 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해주신 말들이 떠오릅니다.

“놀랄 준비만 하자. 그래! 그거야! 너무 좋아! 신났어!……”

사실 어렵지 않은 이런 말 한마디만으로 충분히 아이와 좀 더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아이들의 삶속에서 배운다’ -도로시L놀테-를 읽으며 생각에만 머무르지 말고 아이를 위해 아이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지혜로운 엄마가 되어보겠다는 다짐을 하며 강의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소중한 시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심성수련활동 소감문

사업가

아이들에게 매일 장난스런 말만 듣다가 칭찬하는 것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하고 고마웠다.

오늘 심성수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았고 평소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의 생각과 꿈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 새로웠다.

어쩌면 이 시간으로부터 더 친해지고 서로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진짜로 어른이 되어서 다음에 만난다면 어떨지 궁금하다.

이 상담을 통해 많을 것을 알게 되었고 가끔 이런 상담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면 정말 좋을 것이다.

PS : 친구들 오늘 상담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교육자

이렇게 집단 상담을 통해 더 많은 직업을 알게 되었고, 같이 상담한 아이들의 장래희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일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장래희망이 너무나도 많아 무엇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신중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았다. 내가 신중한 생각을 하고 나니 살다 보면 장래희망이 많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교육자가 되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좋은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한식요리사

오늘은 한식요리사라는 흔히 남에게는 듣지 못하는 별칭으로 불리고 좋아하는 체육과 음악에 관련된 직업을 알아보니 내가 모르는 직업이 많아서 생소하였지만

그래도 많은 지식을 얻은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다.

그리고 사탕 선물바구니까지 받으니 매우 즐겁고 이런 것을 시켜주는 학교가 고마웠다. 그리고 우릴 위해 수고해 주신 선생님도 매우 감사했다.

선물바구니에서 친구들이 보는 내 모습을 보고 놀랐다. 내가 이랬나? 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요즘 요리사라는 꿈을 그만 둘까하고 생각하다가 다시 마음을 접지 않고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꿈을 지켜갈 수 있게 파이팅!

외과의사

비록 2시간이라는 시간에 수업을 빼고 들었지만 지금까지 난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난 못 할꺼야~ 등 나쁜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이 심성수련을 하고 나서 이젠 조금은 자신감을 가졌다. 외과의가가 되려면 많은 역경이 있겠지만 난 이번 심성수련을 통해서 의과의사가 꼭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친구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참 보람 있었다.

패션디자이너

오늘 이런 집단 상담을 통해서 친구들의 생각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그리고 친구들의 그런 거대하고 큰 꿈을 가진 것을 몰랐지만 그 꿈을 아주 크게 펼쳐서 꼭 그 꿈을 이루길 바라도 나중에 커서 지금의 직업 별칭처럼 되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떳떳이 서서 환영을 받고 축하를 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만나서 서로의 이룬 직업을 알리고 칭찬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햇빛

오늘 이렇게 심성수련 활동을 하게 되니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 할수록 즐겁고 재미있었다. 이런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친구들도 모두 어떤지,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란 것을 느꼈다.

나는 별칭을 햇빛이라고 지었는데 햇빛처럼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모두에게 중요하며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생겨서 기분이 좋았다.

아마존

먼저 첫 번째로 별칭 짓기에서 나에게 정말 좋은 아마존을 이름으로 짓게 되었다. 별칭으로 2시간 동안 별칭으로 이름을 부르니깐 너무 재미있었고 좋았다. 그리고 2번째로 어항 꾸미기를 하였을 때 가족과 지금 너무 친하지만 더더욱 많이 친해진 것 같다. 그리고 3번째로 자랑스러운 나에서 소중한 것 희망과 소망, 자랑을 하고 나니 내가 더 자랑스러워진 것 같다. 4번째로는 마음가짐은 행동을 변화시킨다.를 하였다. 나와 나의 자신과의 약속을 3가지 한 것 같다. 너무 좋았다. 이제부터 그 3가지를 지키겠다. 오늘 너무 좋았다.

행복이

나는 별칭을 행복이라고 지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욱 행복해 지고 싶기 때문이다. 또 아름다운 나를 할 때 나에 대해서 더 알아보았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어항 꾸미기를 할 때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했는데 한 번 더 한다면 같이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마음가짐은 행동을 변화시킨다. 라는 자료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나는 남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이기려고 한다. 나는 검소한 생활을 실천한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이 마음가짐으로 행동을 변화 시켜야겠다.

궁금이

이번 심성수련은 상담을 하고 그런 건 줄로만 알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참 재미있었던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고 기족의 소중함을 뉘우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곳에서 한 프로그램은 별칭 짓기, 아름다운 나, 어항 꾸미기 마음가짐은 행동을 변화 시킨다. 등을 했다. 나의 별칭은 항상 궁금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궁금이로 짓게 되었다. 아름다운 나에서는 불행했던, 힘들었던 점을 쓰고 희망이나 소망도 쓰고 나에게 소중한 것들도 썼다. 어항 꾸미기에서는 가족을 어항에 물고기로 꾸미기를 했다. 참 재밌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다.

중학교 심성수련활동 소감문

천사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나에 대해 잘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나에 대해 잘 안 것 같고 내 몸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사춘기가 되면서 반항심이 생기는 것도 알았다. 요즘 아빠한테 잔소리도 많이 듣고 혼나서 가출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극복하면 번데기가 껍질에서 나와 예쁜 나비가 되듯이 나도 반성하고 자유로워 질 것 같다. 그리고 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바른 이성교제를 하고 나의 사춘기를 잘 극복해야겠다.

예쁜 코오

요즘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성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도 쌓이고 공부하기도 싫었는데 이 두 시간의 심성수련을 하면서 마음과 정신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 사춘기가 되어서 고민도 많아지고 힘들었는데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괜찮아 진 것 같았다. 이 활동을 통해 자아정체감도 엿볼 수 있었고 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좋았다. 나는 앞으로도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통해 갑갑한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지구본

그 동안도 희미해졌다가 가끔 명확해지는 나의 꿈이 다시 명확해졌다. 번데기는 지금의 나. 번데기처럼 힘들지만 해야 하는 걸, 노력해야 하는 것을 안다. 꿈은 찾았다. 길도 구성했다. 이제 나는 미래라는 길을 내딛을 차례다. 지금은 힘들지만 내 자신의 한계와 나 자신을 뛰어넘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기다. 이제 다시 길을 내딛으려 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기에 알아서 노력할 것이다. 내 미래는 맑은 날, 밝은 날이므로 내 가능성을 믿으니까!

반달

솔직히 처음에 심성수련회를 한다고 할 때에는 무척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노는 것처럼 신나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여러 가지 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이 충격 받았었다. 나도 사춘기에 대한 감정이 잘못 비껴나가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마인드맵이나 내게 별칭 짓기에 대해서도 해보니까 사춘기와 나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아서 많이 살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공부도 물론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내가 누구지, 왜 있는 건지, 사춘기는 왜 오는지에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심성수련에 또 활동을 해보고 싶다.

앞트임

처음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 성교육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해 봤지만 이런 수업은 처음이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현실적 이였고, 범죄이야기들도 해주셔서 좋았다.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내 몸은 소중하고 남자를 사귈 때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사춘기를 잘 보낸 것 같아 뿌듯했다.

과학자

선생님이 계속 우리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목소리도 나긋하셨다. 우리 엄마도 선생님처럼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했고,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니 미래에 정말 그렇게 될 것만 같았고 앞으로 정말 내가 보람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친구들과도 더 가까워 질 수 있었고 적성이 비슷한 친구도 알았고 선생님이 우리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해 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지금 여기에 내가 써 놓은 대로 미래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재미있었다.

캐릭터디자이너

음! 솔직히 말해 별로 기대 안 했는데 하고 나니 꽤 재미있었다. 친구들과 장래 직업을 말했을 때 색다르고 이런 많은 직업들이 나중에 커서 꼭 이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별로 솔직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시간은 나름대로 내 자신을 많이 소개한 것 같다. 또 나의 지금 위치와 미래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아, 나는 이 정도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도 하고 '나의 방패'를 쓰며 나의 15년 후와 친구들의 15년 후가 다르다는 것을 알며 그때 다시 만나면 정말 재밌겠다고 생각됐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 아끼는 것을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나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하며 공감도 하고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 심성수련활동을 하며 나에 대해 친구들에 대해 좀 더 알고 가까워진 것 같아서 정말 좋았다. 시간이 된다면 또 해보고 싶다.

일류 호텔 파티쉐

이 상담을 하면서 나의 꿈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나와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또 이 상담을 하면서 '난 이런 아이였구나' '내 생각은 이렇구나' '난 나 하나라는 존재가 형성 돼있구나' 하는 온갖 생각을 갖게 되었다. 나는 이 모든 아이들과 달랐다. 똑같지 않았다. '나 같은 존재감과 형성체, 난 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 상담을 하고 지금 소감문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난 나 하나다.'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되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만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정말 나 자신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끝으로 난 나 하나이고, 난 소중하다.

고데기

일단 나만 일수도 있지만 재밌었고 흥미 있었다. 친구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내가 몰랐던 친구들의 마음을 알게 돼서 왠지 모르게 뿌듯했다. 더 심성수련인 만큼 선생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게 새로웠던 것 같다. 내 별칭 짓기도 재미있었다. 나는 솔직히 앞으로도 이런 심성수련을 더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고 친구들의 모르는 마음속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또 선생님과도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사춘기도 알게 됐고 내 마음도 알게 되어서 좋았다. 즐거운 심성수련이었다.

빼꼼같이 친근한 얼굴

보통 지루한 수업 대신 쉬면서 성에 대해 알아보니 효과적인 것 같았다. 사춘기에 대해 알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무슨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았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구상해 보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딱딱하고 어려운 수업대신 즐겁게 하는 수업인 점이 제일 좋았고, 여러 예시나 경험 등을 들으면서 우리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살려 주세요." 보다 "불이야"가 효과적인 것을 알게 되었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도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전적으로 굉장히 알차고 실속 있는 수업이었다.

안과 간호사

평소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나에 대해 반성과 나를 새로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진로에 대해 확실히 깨닫고 그 길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또 선생님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떠하다' 라고 핵심으로 말씀해 주셔서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있어서 더욱 더 뜻 깊었고 친구와 더 가까워지고 친해졌던 시간이었다. 두 시간이 짧게 느껴졌고 많은 것을 알게 되어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한 번 해보고 싶다.

플로리스트

나라는 아이는 정말 무엇이 되고 싶었을까? 라고 진지하게 이번 시간에 생각을 해 보았다.

내가 해 보고 싶은 꿈은 너무나도 많은데 한 개만 선택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도 돈이지만 인생 한 번 밖에 못사니까 재미있게 살고 싶단 생각도 든다. 앞으로 수많은 꿈 중 내가 정말 무엇이 될지 생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기왕 꾸는 꿈 좀 더 큰 꿈을 생각해 볼까?

고등학교 심성수련활동 소감문

한식호텔 총 책임자

이 활동을 하면서 나의 별칭을 지을 때 왠지 이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고 목표가 정해진 느낌이었다.

내가 힘들었던 때를 이야기 하면서 지나간 일들이 생각나고 기억에 남는 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동안 어떤 말들을 들었는지, 사람과 물건 중에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가치관 경매를 하면서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선택하는 시간동안 그 가치에 관하여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2시간 동안 활동한 시간을 오래도록 기억할 만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다.

5분만

친구들의 별칭을 보고 내 별칭도 만들어 보니까 그동안 내가 안 좋은 일도 내 마음 속으로 합리화시켜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친구들의 별칭도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의 생활 습관과 직업 등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멋진 나' 라는 프로그램에서 친구들의 생각과 자라온 환경도 알 수 있어서 새롭고 그 친구에 대해 알아 가는 기분이 들어서 재밌고 좋았다.

또 가치관 경매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알 수 있었고 나의 가치관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았다.

그렇지만 나의 고민은 너무 많다.

강아지 풀

나는 오늘 많은 것을 느꼈다.

별칭을 이름 대신 불려 보니까 새로운 느낌이 들었고 이 별칭을 지을 때 친구들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느껴본 것 같다. 또 나를 소개할 때 내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친구들이 힘들었던 때나 소중히 여기는 것들, 앞으로의 목표를 알 수 있어서 느낌이 평소보다 무척이나 새로웠고 이 심성 수련을 통해 받은 느낌이 모두 다 새로운 느낌이었다. 또 가치관을 입찰하고 낙찰 받으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가치관을 얻지 못한 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연기자

오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가치관 경매에서 내가 좋아하는 직업적 성취를 얻어 좋았고 부정과 속임이 없는 세상이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믿을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만화가

친구들의 마음을 엿들은 것 같다.

했던 말들을 전부 돌이켜 보면 친구들 마음이 언제나 밝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별칭으로 불러지니 적지 않게나마 만족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나의… 나도 잊고 있던 일을 돌아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는 순간, 이 순간을 나중에 가서도 잊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 같다.

만약 나중에 지금 선택한 일들을 정말로 실천하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매우 즐겁다.

작가

나는 지금까지 나 혼자만의 꿈만을 떠 올렸다. 나만이 잘 되어야 하고 나만이 꿈을 이루어내면 그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나와 똑같이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작가가 되려면 책도 많이 읽고 영화나 남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난 여태까지 누구를 이해했었나? 사실 나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 자신을 알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꿈과 살아왔던 경험을 알아야 한다. 지금 이 소감문을 쓰면서 이 뜻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이 시간을 있게 해준 학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나를 좀 더 이끌어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표한다.

게임디자이너

중학교 때보다 신선해졌다.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미래에 내가 이 직업인이 되어서 어떤 인물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앞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간절하게 바라고 노력이 부가로 따르면 정말 뭐든 될 것 같다. 설사 현실이 가로 막아도 현실이란 바다에 미끼를 내리면 무엇이든 수확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후회없이 이 작은 꿈 하나 믿고서 등에 보이지 않는 날개로 요리 조리 날다 보면 나의 꿈을 꼭 이룰 것이라 생각한다.

망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며 이름이나 별칭 등을 지어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내가 옆에 있는 친구의 별칭을 지어 주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 보다는 나쁜 점부터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점을 찾았을 때에도 나는 그 사람의 나쁜 점에 감춰진 좋은 점을 잘 보지 못했다. 앞으로는 그런 좋은 점을 잘 찾아내 칭찬해 주고 나쁜 점을 이용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소개 등을 썼는데 솔직히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들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말해서 쑥스럽지만 후련해서 좋았던 것 같다. 세 번째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눈을 감고 패해 가는 활동을 하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족과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보람 있었던 시간이었다.

백곰

처음에 친구끼리 짝지어서 별칭을 지었을 때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웃기만 했는데 다 짓고 불러보니깐 친구들끼리 더욱 친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 별칭은 중 3때부터 들어서 왠지 익숙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별칭을 다 정하고 나도 '멋진 나'를 했는데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소개 뿐만 아니라 다 썼는데 다 쓰고 다른 친구들 말도 들어보니 그냥 뭔지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그냥 왠지 모르게 애들한테 말하기 싫은 점도 있었던 것 같고 친구들 말 들으면서 내 것도 읽어보니까 그냥 엄마 생각이 너무 나서 그랬던 것 같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런 것 같다. 말 안해서 답답한 점도 있지만 말 안한 것도 불편하지 않아서 잘 한 것 같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달팽이와 맹인을 했을 때는 정말 답답했다. 맹인의 마음도 좀 알 수 있었고 앞이 보이니 편하다. 라는 느낌을 제일 많이 받았다. 아무튼 이 심성수련이 왠지 뭔가 보람찬 것 같다. 재미있었다.

미소

심성 수련을 처음 해봤다. 한다고 했을 때 왠지 재미있을 것 같고 궁금했다. 처음에 선생님이 초코파이와 음료수를 주셨을 땐 마냥 좋고 그냥 시간만 때워야지란 생각을 가지고 했다.

첫 번째로 가족소개와 내가 힘들었던 일 이런 걸 쓰는 걸 했었다. 솔직히 내 마음을 이렇게 터놓은 적이 없어서 괜히 다른 걸 속여서 쓸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애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는 것을 보고 그러면 안 되겠단 생각으로 나의 얘기도 진실 되게 썼다. 난 그냥 아무감정 없이 끝날 줄 알았는데 내 차례가 되고나서 우리 가족 소개하는데 괜히 울컥했다. 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너무 말하는 게 힘들어서 그만 둘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꿋꿋이 내 얘기를 했다. 왠지 속도 후련하고 애들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달팽이를 시각장애인한테 인도하는 것도 했는데 내가 먼저 눈을 감고했는데 정말 답답하고 눈을 뜨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리드해 주었을 때는 재밌었다. 그런데 옳은 방향으로 설명을 잘 할 수 없었지만 재밌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더 하고 싶다.

발랄잉,캉

내 마음 별칭 짓기를 했을 때는 오늘 내 하루 기분을 통해서 재미있게 보냈는지 힘들게 보냈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하루였고 그 다음에 하게 된 프로그램은 내가 화가 났을 때나, 속상할 때나, 그런 일들을 다시 통틀어서 생각해보면서 내가 이랬을 때 저랬을 때 힘들기도 했었던 일들과 재미있었던 일들을 또 다시 생각하면서 반성도 하고 살짝 보람도 느끼게 되었다. 나의 나무를 하면서도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고 쓰면서 고마움도 느끼고 아주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 내 모습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고 생각해 가면서 뿌듯하기도 했고, 정말 그 미래처럼 돼서 꼭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다음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단 생각도 들었다.

재미있고 뭔가 뿌듯한 기분인 것 같았다.

우울, 행복

이런 시간을 가져서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어리둥절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내 고민과 나의 성격과 이런 얘기를 하니깐 좀 더 가까워 진 것 같아 편한 것 같다. 내 피부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모습만 보였는데 이제부터는 음식조절과 좋은 팩, 화장품 등으로 꾸준히 발라서 도자기 같고 고현정처럼 아기 같은 피부를 만들 것이다. 친구들의 속사정과 성격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얘기를 나눠서 친구들에 대해 더 잘 알아 간 것 같다. 이제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별칭처럼 우울한 것 보다, 행복한 일이 더 많아지게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다음에도 이런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심성수련활동 소감문

동그라미

아이에게 잘하고 있는지… 다른 엄마들은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여러 엄마들도 아이 생각에 가족 생각에 울고 웃고 많은 고민을 하여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이 말을 잘 들어 주고 있고 눈높이에 맞춰야지, 자존감을 잃지 않게 해야지, 아이의 생각을 공감해 주고, 들어 주어야지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며 다짐해 본다. 오늘의 이 자리에서 한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길 바란다.

프리지아

날씨가 너무도 화창한 날! 좋은 말씀을 듣게 되어 무엇인가를 잔뜩 선물 받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하루하루 아이들과 남편과의 전쟁 같은 나날들이었는데 내가 엄마로써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아이들을 위해 어떤 교육과 어떤 말들이 아이에게 힘이 되고 아이의 인생에 어떤 밑거름이 되어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계절 산

학부모 심성수련이라 뭘 할까? 그냥 듣기만 하는 걸까? 아님 무언가 만들라는 걸까? 집에서 나올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 대해서 오로지 날 생각하는 시간, 기본 밑바탕을 건강, 가족, 사랑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는 좀 더 들어주고 보듬어 주고 이해할 줄 아는 현명한 아내, 엄마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감사드려요!

믿음

처음에 이곳에 올 때에는 내 아이들이 산만하고 예의가 바르지 않아 나 혼자 어떠한 방안도 찾지 못해 힘들어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 좀 더 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신청을 했다.

좀 더 바른 아이, 믿음직하지만 예의 바르고 괜찮은 아이로 인정받는 아이로 기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일을 하다 보니 늘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긴 하지만 너무 바르게 인도해 주지 못해서 걱정이 많이 된다. 공부하는 것도 시기가 있듯이 이 시기를 지나치지 않고 빨리 잡아줘야 하는데 불안하다.

상담실에 와서 이야기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부부사이가 제일 문제인 것 같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문제인 걸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 집에 돌아가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친구에게도 말 하지 못하는 면도 많았는데 가슴속에 있은 말을 하면서 속도 후련하고 약간은 편해진 것 같다.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차이는 있겠지만 고민이 많구나하고 생각했다.

미스코리아 진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상담실을 오게 되었지만 같은 또래의 엄마들과의 대화 속에서 느끼고, 배우는 점이 많아 '오길 참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대의 젊은 엄마로써 많은 육아, 교육, 남편, 새댁 등 많은 갈등과 고민들을 몇 년 동안 남편과 상의해 보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남편의 입장에서 또 아이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니 집안의 가족 분위기가 바뀌고 나도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꿈을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물론 가족에게도 잘 해야겠지요. 저는 지금 현재 만족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교육이었습니다.

희망이

오늘 이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 많은 위로가 됐고 내 마음을 좀 더 강하게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불행은 내가 생각하는 데에 있고 행복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에 불안한 마음은 던져 버리고 행복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마음이 되고 싶습니다.

아따맘마

심성수련 그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기대되는 시간이다. 특별히 이 시간을 위해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리라 싶어 더욱 일찍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 같은 근무하는 직장 사람은 아니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 직종을 사람에게서 오늘의 배움은 따뜻함. 성실함, 한 사람을 잠깐의 나눔 시산에서도 진실함 속에서 큰 배움이었다고 생각한다. 더욱 조용히 생각해 보며 여기 함께 한 분들 이야기 속에서 고마움과 기도를 하며 상담을 이끌어 주신 마중물님께 또 인연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심성수련활동 소감문

동그라미

보건교사 심성수련활동 소감문

마아가렛

내가 늘 좋아하던 마아가렛으로 별칭을 지으면서 옛날의 내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여 내가 젊었을 때 추구했던 이상들이 떠오르기도 해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오뚝이 프로그램 활동 시에는 전에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했던 내가 지금에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서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서로 아픔을 공유하면서 들어주기도 하고 격려도 해 줄 수 있어서 좋았다. 나는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해 본다.

로마의 휴일

심성수련 공문을 받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내 심성이 그리 나쁘다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심성수련?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출장을 왔다.

별칭을 짓는 것으로 첫 순서를 하며 재미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오뚜기의 삶을 나누었다.

인생의 힘든 점, 미래의 내 모습, 좌우명 등 나 뿐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의 삶을 들으며 내 삶을 정리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

심성수련이라 해서 나쁜 심성을 좋은 심성으로 바꾸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허구의 일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며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를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희망

궂은 날씨에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할까? 생각하고 왔는데 도착해 보니 안내문 하나 없고 그냥 돌아가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심성수련을 하면서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 똑같이 힘든 점이 있다라는 것에 힘을 얻었고 답답했던 마음 한 구석이 해결된 듯 하고 긍정의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 보람 있는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TV에서 보던 장면에 내가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러 느낌, 학교헌장에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춘기 고학년에게는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미아샘

만물을 소생할 수 있도록 봄비를 아침부터 내려 주셔서 공원과 가로수의 나뭇잎들은 마치 한창 자라는 우리 아이들과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심성수련에 참가하여 모두들 솔직하게 본인의 힘들었던 일과 꿈을 아낌없이 발표할 때 많은 것을 얻어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일들 정리해 보면서 몇 년 전 그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려 보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리고 헤매고 다녔는지~ 그것으로 인해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의 꿈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반드시 나의 꿈이 이루어 질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케멜레오

오늘 심성수련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오는 길은 덥고 차가 많이 밀려 조금은 조급하고 짜증이 나려고 하였으나 막상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나를 오픈하여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풀리며 해결 되는 듯 하였다. 또한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해소되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늘 마음으로 다가가서 상담선생님처럼 따뜻하게 다가가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쁜 롱다리

나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 나뿐만이 아니었구나. 다른 분들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었고 잘 이겨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다들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어서 저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습니다. 나 자신의 삶에도 충실하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형님아!

조금 허탈합니다. 처음에 오뚝이를 적으라고 하셨을 때에는 참 모호하게 적으며 어떻게 발표를 하지?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눈물이 많은지라 혼자 터져 버렸네요. 좀 쑥스럽기도 하구요.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네요.

앞으로도 씩씩하게 버텨 나가려고 합니다.

지혜의 샘

보건교사 심성수련 공문을 받았을 때 가슴이 안정 되는 듯한 포근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을까 궁금했는데 막상 소그룹으로 모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칭 짓기, 오뚜기의 삶처럼 소중한 것, 잘하는 것, 앞으로의 나의 삶, 마음에 남는 한마디를 쓰고 모인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경청하면서 공감하였고 함께 어려웠던 일, 기뻤던 일을 나누면서 한층 생활의 활력을 제공받았다. 바쁜 가운데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생활을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와 나에게 맡겨진 소중한 학생들 가족들의 존재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다.

Chapter 3

교육 참여사례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교육을 끝내며… / 24기 김선희

▸ 보수교육 심성수련활동 소감문

▸ 과거의 설레임, 오늘의 열정, 미래의 행복/ 22기 박영주

▸ 마지막 기차를 타고 떠나는 2박 3일의 여행 / 19기 김정미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교육을 끝내며…

24기 / 김 선 희

'학생상담자원봉사?'

갸우뚱거리는? (물음표)을 찍으며 내 발걸음은 면접장소로 향했다.

면접 장소에 도착해서 난 너무나 깜짝 놀랐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하나같이 예쁘고 젊은 엄마들뿐이었다. 순간 난 머리가 띵해지며 '그냥 집으로 갈까? 말까?' 내 자신과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난 싱싱하고 활기찬 사람 내음새를 맡게 되었고 그 속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순간에 묘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기초 교육 첫날!

어색한 만남이었지만 모두들 공통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그런지 왠지 친밀감이 빨라짐을 느꼈다.

둘째 날부터는 많은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젊은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배우고 나누며 사는구나 하는 부러움과 내가 과연 이 상담교육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겼다.

선생님이나 선배님들께서는 천천히 배우면서 익혀나가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셨지만 사실 두려웠다.

처음 일주일간은 기초교육이론으로 집단 상담과 심성수련, 인터넷 중독의 예방, 성교육, 진로교육, MBTI(심리검사) 등을 배웠다.

2주차부터는 집단상담 교육이 있었다. 9명씩 4개조로 나뉘어서 이루어졌는데, 소집단으로 나누어지니 더욱 친밀감이 느껴졌고, 상담 수업이 진행될수록 서로의 마음속 깊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때론 서로 눈물짓기도 하고 때론 박수를 치며 기뻐하기도 했다.

수업 중에 느껴지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서로 선생님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정말 나의 마음 속 깊이 잠자고 있던 감정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며 그렇게 느껴지는 감정들이 소중하고 반가웠다.

누군가를 상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간순간 내 마음이 다시 정화되는 것 같은, 그래서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내 삶에, (쉼표)를 찍으며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쉽지 않은 수업시간이었지만, 체력으로 느껴지는 힘듦보다는 마음으로 얻어지는 풍요로움에 하루하루가 감사한 시간들이었다.

24기 수료식 날! 수료장과 함께 선배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장미꽃 한송이를 가슴에 안았을 때 벅찬 감동과 함께 내 자신이 대견해졌다.

쫑파티를 하며 그간 우리들을 위해 고생하신 선배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했고, 23년 동안 그 길을 지켜오며 봉사해 오신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봉사자회를 우리 또한 진지함과 사랑으로 뒤따를 것을 다짐해 본다.

이제 새내기 상담 선생님으로서 약간의 떨림과 설렘도 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선생님이 될 것을 나 자신에게 선서해 본다.

그리고 우리 24기 선생님들! 파이팅! 하시고 우리 모두 처음 가졌던 열정과 나눔과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요.

모두들 사랑합니다!

보수교육 심성수련활동 소감문

텔레토비

행복한 주말에 보수 교육 받으러 가는 길은 설레임과 함께 기대감으로 가득 찬 걸음이었다.

도착한 상담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잘 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프로그램 하나 하나하면서… 옛 시간 속으로 추억 여행을 떠나고 그 속에서 선생님들의 지난 삶을 엿보기도 했다.

또한 직업 선택 기준을 함에 있어서는 열정과 행복을 가지고 적성에 맞춰 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숙지하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감사합니다.

피그 마리오

캐릭터 별칭 짓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진로, 직업에 대한 교육은 가정, 학교, 본인, 이 세 가지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진로 지도가 아닐까 한다.

포켓몬스터

언제나처럼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시간은 기대에 부푼 가슴을 안고 오게 된다. 상담실을 들어오는 순간에 만나는 얼굴에 피는 꽃향기가 그윽했다.

캐릭터 별칭을 지으면서부터 나를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된 귀한 시간이었다. 함께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 시간 동안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이금희

캐릭터 별칭을 지으면서 나의 강점을 찾아보는 새로운 시간이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거운 생활 속에서 직업을 찾고, 진로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다.

요즘 심성수련을 하면서 진로 지도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 적성, 흥미, 소질을 고려한 행복한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백설공주

진로적성으로 심성수련을 하고 있어서 오늘 보수 교육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아이들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는 것 같다. 우선은 자신을 알아야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지금 현재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콩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추구하고 살아온 삶이 누구를 닮았는지 생각해 보는 마음이 좋았다. 콩쥐처럼 착하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길을 원해본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장점을 살리고 그 일에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행한다면 실패와 좌절은 없으리라 생각해 본다. 원하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집중하면서 나의 가치관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은 일들을 감당하며 늘 보람 있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해 본다.

과거의 설레임, 오늘의 열정, 미래의 행복

22기 / 박 영 주

2010년 4월 16일,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하늘도 우리의 연찬회를 축하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따사로운 봄 햇살과 쾌청한 공기를 한껏 느끼며 버스에 몸을 싣고 원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은 학창시절 수학여행 가는 여학생처럼 부풀어 있었다.

9시까지 출발지에 도착하기 위해 6시30분부터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손발에 모터를 단것처럼 바빴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나의 합법적인 1박 2일 외박을 배려해 준데 대한 보답이라는 생각에 힘들지 않았다.

올해로 3년째. 첫해엔 연찬회가 宴饌인 줄 알았는데 硏鑽이구나~ ~. 작년엔 방송대 기말시험이 겹쳐서 프로그램에 몰입하지 못하고 애를 먹었다. 이번엔 또 어떤 프로그램이 내안에 숨어 있는 내가 나를 만나러 올까? 하는 생각을 하며 옆자리에 같이 앉으신 20기 선배님과 인사를 나누다 깜짝 놀람과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얼굴도 모르고 지내다니… 나중에 중2 딸에게 물어보고 알았지만 그분 아들과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인적도 있었다한다. 세상이 참 넓고도 좁다는 것을 이렇게 피부로 느낀 적이 전무하였던지라… 암튼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고 건너편 같은 줄에 앉아계신 임윤희선배님의 박장대소하시는 밝은 웃음은 보~ ~너~스에 당첨된 기분이었다라고 표현

하면 선배님이 기분 나쁘시려나?

버스 안에서 전원의 자기소개를 첫사랑에 대한 주제로 이끌어 주신 사회자님의 기발한 진행덕분에 소개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30년, 40년 전까지 여행하며 상기된 볼과 흔들리는 눈동자로 추억의 필름들을 펼치는 순간순간들은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발표하는 단편영화제에 앉아 있는 여배우들 같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우리 봉사자회 선생님들이 모두 미인이시잖아요!) 사회자님~ 다음엔 국제영화제처럼 시상식까지 해 보면 어떨까요? (^.^)

날씨와 더불어 행운이 겹쳐 도로까지 막힘없었던 덕에 일찍 도착한 구룡사에서 40분 남짓 산책으로 버스에서 불편했던 몸을 풀고 치악드림랜드 유스호스텔에 도착해서 먹은 점심은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정해진 방에서 길게 한번 기지개 펴고 누워 편안함을 느끼기도 잠시, 바로 세미나실에서 특강이 시작되었다.

정갑순 원장님의 시원시원하고 유머 넘치는 강의는 성공하는 부모가 되기 위한 일곱 가지 습관에 대한 내용으로 모두 실천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중 가장 인상이 남은 것은 사명서 작성하기였다. 연찬회를 다녀온 다음 남편과 둘이 술 한 잔 하며 가족사명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평소 우리가족이 좋아하는 정선의 조용한 펜션에서 1박을 하며 아이들과 가족사명서를 작성해 보자고 계획했다.

이번 연찬회는 '미래의 주인공과 함께하는 청소년진로 교육'이라는 주제아래 희망 별칭짓기, 나를 광고합니다. 순으로 분임활동을 진행하였다. 나의 별칭은 '벙어리'였다. 희망별칭에 벙어리라니? 그 이유는 요즘 조금 안다는 자만심에 주위 친구들에게 충고 비슷한 말들을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생각에 평소 나의 대화스타일대로 거르지 않는 직접화법으로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해 상대를 맘 상하게 하고 나 스스로 아픔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충고하는 사람이 아닌 벙어리가 되어 맘으로, 표정으로, 눈물로 대화하는 상담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나를 상품으로 생각하고 남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장점과 능력을 찾아서 홍보용 광고지를 만들었다. 행복하게도 나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여기서 모두 나열하면 잘 난 척하는 것 같아 보일 것 같아 같은 분임의 선생님들께만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광고합니다!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대집단 프로그램에서는 직업의 종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적다는 것에 반성하며 아이들과 만나기전에 더 준비해서 내가 상담한 아이들이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소중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할 수 있는 노력하는 준비된 가이더가 될 것을 다짐했다.

드디어 함께 어우러져 몸으로 느끼는 시간! 등 떠밀려 올라간 무대에서 튀는 노란 의상에 7년 넘게 단련한 웨이브로 압도적인 시선을 받으며 우리 팀에 점수를 올릴 수 있었다. 해가 갈수록 적극적인 나의 모습에 스스로 놀라며 혹시 아줌마의 뻔뻔함인가? 마지막 흥겨운 댄스타임에서 이영숙연구사님의 세련된 춤 실력은 우리조의 흥을 더욱 고조시켰다.

17일 이영대 강사님의 특강은 청소년진로지도의 핵심이었다. 청소년에게 진로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해 주셨고 유용한 검사지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막연한 꿈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 현재보다는 15년~20년 후를 앞서 볼 줄 아는 직업관도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미래엔 여성친화적, 노인친화적인 직업이 대세라고 하는데 또 어떤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지 기대되기도 한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강사님의 해맑은 미소와 꾸미지 않은 수줍은 몸짓이 강의 시간 내내 매력으로 느껴졌고, 나도 남들에게 해피바이러스를 전파 할 수 있는 독특한 케릭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강의 시작 전부터 끝나고 버스에 오리기 전까지 우리에게 다가서시는 모습이 내가 본받아야 할 또 하나의 숙제였다. 참! 빨리 스마트폰으로 교체해서 앞서가는 것이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방법이라는 말씀에도 동의하며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

그리고 “특별히 강사님 카메라로 22기 동기들과 함께 찍어주신 사진 갖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봉사자의 이모저모’ 분임토의 발표는 짧은 시간 탓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학생상담자원봉사자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로 임 할 것을 다짐해본다.

“회장님~! 봉사자회브로치 진짜 이뻐요. 감사합니다!!!”

유난히 차로 누군가 마중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이 교육청 앞으로 나를 데리러 와준 것까지, 이번 3년차 연찬회는 설레임과 열정과 행복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할 것 같다.

마지막 기차를 타고 떠나는 2박 3일의 여행

19기 / 김 정 미

여러해 전에 지도자과정을 신청해 보았지만 내가 신청한 해에는 인원이 모이지 않아서 교육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잊고 있었었는데… 2010년 회칙을 개정하면서 나의 방심이 끝을 나는 보고 있었다. 날·벼·락, 다행이 회장님의 구제기간이 있어서 올해 초급지도자 과정을 늦깎이 대학생처럼 초급 지도자 과정을 하게 되었다.

첫날 동부 상담실에 모인 선생님들의 모습은 안도의 모습과 쑥스러운 모습들이였다.

다들 바쁘게 지내셨고, 우리봉사자회를 맘에서 저버리지 않으셨던 분들이신데…

우리는 마지막 기차에 몸을 맞기고 기관장의 출발소리와 함께 2박 3일의 마지막 기차를 타고 출발하게 되었다.

몇 년 동안 받았던 보수교육과 다르게 내게 마음열기가 힘들게 다가왔고 늘 그랬듯이 첫 날부터 나는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했으나, 눈물은 여전히 내게는 마르지 않는 샘이 이었고, 조금은 창피하면서, 조금씩 내안의 나를 바라보면서 타인과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함께 한 선생님들의 이해와 배려를 받는 나는 참 행복한 순간임을 느끼게 했다. “내 안의 나 죠지”라는 책처럼 내안에 있는 나는 늘 공생하면서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고 많이 비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 안의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욕심으로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더 많은 것을 비우면서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되었다. 욕심은 많고, 이기적이고, 용기도 없는 나는 더 많은 나의 모습에 나는 감당할 수 없어서 많이 힘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밝은 미소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시는 표지판님의 목소리에 나는 부러웠다. 첫날의 마음 표현이 부족했는지 표지판님 당당함과 감정표현 우리의 여행의 시작을 알려왔다.

오늘은 무엇을 비우고 가고, 나는 어떤 사람이가? 나는 누구인가? 돌을 던지면서 초급지도자 연수는 가벼우면서도, 무거우면서도, 기쁘면서도 점점 나를 표현하고 나를 알아가고 있었고 또 그만큼의 눈물로 휴지는 점점 나와 가까운 곳에 있었다.

누군가는 내게 눈물이 많은 것에 감사하라고… 눈물이 바르면 당신은 서 있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고….

'3분 테스트'를 하면서는 여기저기서 이상행동을 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조바심과 함께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습관이라는 것과 의사소통이라는 벽에서 우리는 모두가 자기의 관점으로 상대를 읽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상담자로써 우리는 다르게 평범하면서도 평범할 수 없음을 다시 느끼는 날이었다.

내가 나에게 익숙할 때쯤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음을 알려주었다. 빡빡한 초급지도자과정의 일정을 해나가면서 상담자로써 자신을 정화는 과정이 중요함을 알았고, 돕는 이의 역할과 피드백이 우리를 더욱 성숙한 자리에 있게 했다.

'생의 도표'를 통해서는 나의 인생은 그림퍼즐 조각 맞추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편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각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굴곡에도 희로애락이 있는 듯 나의 그 인생의 명화를 완성시키는 날을 기다리면서 앞으로의 나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을 알게 해준 여행이 되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러주신 8기 강복금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한 늦깎이 선생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상담의 리더로서 학생상담봉사자 선생님들과 긍정의 마인드로 묵묵히 함께 하고 싶어졌다.

Chapter 4

봉사활동 참여사례

▸ 즐겁고 보람된 시간 속에서 / 5기 김혜숙

▸ 아름다운 사람들 / 5기 이경자

▸ 또 다른 나를 찾아서 / 15기 김순옥

▸ 학생상담 자원봉사 10년의 감회 / 15기 한희영

▸ 중급 지도자 과정을 마치고 / 20기 서미애

▸ 내게 심성수련은… / 19기 정순영

▸ 구제역으로 수련회 취소 후 하게 된 심성수련 / 17기 장정륜

▸ 내가 늘 바라보는 아이들 / 17기 임은령

▸ 받는 봉사에서 나누는 봉사로 / 24기 김선미

즐겁고 보람된 시간 속에서

5기 / 김 혜 숙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만나는 날이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주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심성수련 활동을 하다가 올해는 오랜만에 초등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의 심성수련을 진행하다 보니 아이들의 정서가 참 많이도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녀수가 적고 부모들의 지나친 열의 때문에 아이들은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공부벌레가 되어 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여기저기로 공부하러 다니느라 일주일의 시간이 모자라게 바빠서 자신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니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인 모양이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어린 나이에 말이다.

큰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그 해, 1991년에 나는 5기 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되었고, 올해로 20년째 활동을 하고 있다. 어쩜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을까, 정말 놀랍기만 하다.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최선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하다 보니, 어느 새 나도 할머니 선생님이 되어 버렸다. “선생님 할머니 맞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끔씩 듣는 이야기다. 처음엔 좀 속상했지만 몇 번 듣다 보니 이젠 괜찮아졌다. 세월의 흐름이 새삼 느껴지는 요즈음이다.

“오늘 저녁에 세상과 이별하려 했는데 심성수련을 하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생각난다. 길지 않은 시간에 아이의 위험한 생각이 멈추었다니 얼마나 큰 성과인가. 이런 맛(?)에 매력을 느끼며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을 즐겁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중학교 심성수련, 고등학교 심성수련, 초등학교 심성수련, 어머니 심성수련, 아버지 심성수련, 교사 심성수련, 부자 심성수련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시간들을 즐겁게 심성수련 활동으로 보냈던 시간들이 내겐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억들로 남아 있다.

좀 더 충실한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공부들을 더 하였고, 다른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청소년회관, 복지관 아이들, 주간보호센터 할머니들, 한글교실과 검정고시반 멋쟁이 아줌마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의 실력과 이해심, 인내심을 더해 주었고 행복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까지 보너스로 가져다주었다.

다년간의 활동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 중에서도 소년원에 다녀온 아이들과의 집단상담, 성매매 여성들의 업소로 찾아가서 진행했던 집단상담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 무슨 일을 하시느라 그리 바쁘시냐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내게 묻곤 한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항상 처음 시작했던 설렘으로 충실한 준비를 하여 늘 즐겁고 보람된 시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들

– 봉사자 활동 20주년 맞이한 소감 –

5기 / 이 경 자

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 작은아이는 유치원생 이었는데 학교선배와 친구의 추천으로 상담봉사자회 5기 모집의 안내를 소개받았다.

시부모님과 함께 삼대가 지내고 있는 집안의 종손 며느리로서 바쁜 일과는 숨가뿐 하루하루로 체바퀴 돌듯 연속이기에 60시간의 기초교육 을 받는 일은 엄두가 나지 않았었는데 상담봉사자로 위촉장 을 수료하고 시작한 봉사자의 길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도전이었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2000년 21세기를 떠들썩하게 맞이하며 왠지 가슴 설레이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또 십년이 지나 강산이 두 번 이나 변한 세월이 흘러갔다. 하긴 어린 두 아들 이 대학졸업하고 국방의 의무까지 잘 마친 장성한 사회인이 되었으니 20년 세월이 한순간으로 스쳐간 시간은 아닌 듯 싶다.

돌이켜 생각하니 한줄기 기쁨과 슬픔이 모여 흘러가는 강처럼 새록새록 하다.

결혼 후 접어버린 꿈은 현실과의 다툼과 멀어져가는 이상으로 비틀거렸고 점점 마음은 닫혀있었다. 그런 내게 상담봉사자의 교육은 신선한 자극이 되었으나 타인을 위해 상담을 한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두려움으로 큰 용기를 내야할 과제이기도 했다.

기초교육시, 5기 동료들과 돕는이 1기 박숙근 선생님의 첫 심성수련의 뜨거운

만남,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작한 학생상담활동은 활기를 불어주었고 정기적 모임과 교육연수시 자유공원 꽃길을 오가며 함께 나누던 정겨움, 영종도 연찬회에서의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수련과정, 심도 깊은 지도자 과정들은 모두 가슴뛰는 삶의 에너지가 되어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지속하도록 이끌었음에 틀림없다.

책꽂이 한 귀퉁이에 닳아진 봉사자회수첩은 하나같이 다른 향기를 지닌 꽃 같은 사람들의 만남이 있기에 그리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길다면 긴 봉사활동은 결코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연세가 많으시고 완고하신 시부모님도 차츰 이해하신듯 도와주셨고 남편도 아이들도 고맙게 각자 역할에 충실 하였기에 가능한 가족의 배려 로 힘이 되었다.

또 마음으로 만나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참 만남으로 맺어진 우리 봉사자들과 함께한 희노애락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그 어느 것과도 비할 수없는 고마운 사랑으로 버팀이 되기도 하였다.

미래사회의 대비로 새로운 시각의 창의력 교육과 사회적으로 시급히 요구되는 재교육이 필요하고 상담봉사자들의 개인적 욕구에도 발맞춰 전문성을 향한 배움이 활발한 우리봉사자의 모습은 더욱 믿음직스럽다. 인천 영종도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가졌던 전국봉사자회에서도 뛰어난 활약으로 주도한 일은 너무도 자랑스러웠던 기억이다.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우리 인천학생상담자원봉사자 선생님 자신을 다듬는 일도 게을리 말고 우리 서로 소중한 거울이 되어 아름다운 우리로 함께해요.

정 담아 들려주는 격려의 말 한마디로 용기를 내게 하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상한 마음 아물게 하며 사랑의 말 한마디는 소망의 뿌리가 되어 열정에 불씨를 당깁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도록 오늘도 격려하고자 향하는 우리들은 모두 행복의 숲을 가꾸는 정녕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나를 찾아서

15기 / 김 순 옥

하루의 시작과 함께 창문을 연다.

상쾌한 바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집안으로 밀고 들어온다.

아침햇살을 받으며 하루 일정을 계획해 본다.

그래, 오늘은 00고등학교에 심성수련이 있는 날이구나.

여학생 반인데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신발을 신지?

학생들을 만나는 날이면 유난히 외모에 신경이 쓰인다.

첫 만남에 밝음이 풍겨졌음 좋겠고, 씩씩한 모습으로 자신감과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10년 전 우연한 기회에 남편의 권유로 학생상담자원봉사 기초교육을 받게 되었다.

처음 10일간의 기초교육을 수료한 뒤 활동을 시작했을 때에는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지속하리라 생각하지 못했었다. 상담활동을 시작하고 청소년의 문화적 공간이나 사회적 조건 등이 우리 학생들에게 참으로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느껴졌고, 그들에 대한 학생상담봉사자 역시 부족하다고 생각 되어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되고자 지금까지 활동을 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학생들과 맨 처음 나누게 되는 인사말이다. 어리둥

절해 하며 인사를 받아 주는 아이, 멀뚱멀뚱하게 쳐다보는 아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아이…

먼저 심성수련을 하기 위해 자리를 배치하고 오늘의 날씨, 스포츠 소식, 가요 순위, 학교 행사 등 아이들이 관심을 끌만한 화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오늘, 여기에 선생님이 뭘 하러 왔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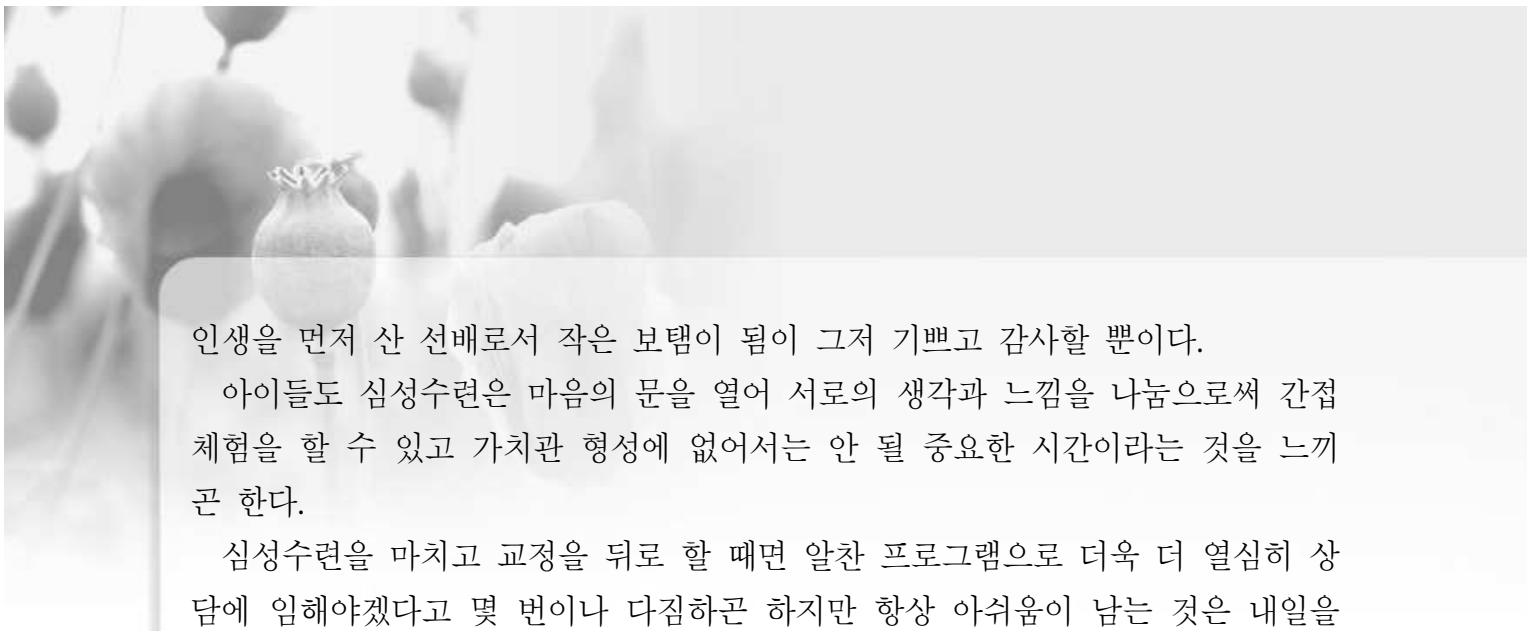
"고민 이야기, 진로 문제, 이성에 관한 것, 몰라요…." 하고 웅성거리며 대답한다. 심성수련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심성수련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 되는지?를 묻고 답하며 대화의 장을 만들고,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게 되면 준비해 간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아이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뜻하지 않은 언어들을 쏟아 내어 웃음바다를 만들었다가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 나를 놀라게 하기도 한다.

점차 아이들은 나에게, 나는 아이들에게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진심어림이 통하게 되고 상담의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간다. 활발하게 잘 참여하는 학생들 보는 것도 보람이 있지만 수줍음이 많거나 자신감이 없어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을 때 따라오는 아이들의 모습은 가슴 속 깊은 뿌듯함과 감동이 있다. "선생님처럼 훌륭한 상담자가 되고 싶어요."라는 스스럼없는 아이들의 말에 나의 가슴은 무한한 용기와 희망으로 벅차오르기도 한다.

오랜 갈등으로 멀어진 친구와의 화해, 끝까지 친구의 일이라며 조심스레 꺼냈던 성폭력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망설이다가 드디어 결정하게 된 장래 희망, 나만의 못된 성질인 줄 알았다가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빙그레 웃는 모습, 나를 모른 척 했었는데 사랑의 한마디를 정성껏 적어주는 친구에게서 느껴지는 우정, 부모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 나조차 몰랐던 크고 작은 장점들….

청소년들은 자기들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려 들면 들수록 그들은 오히려 살아있는 조개나 거북이처럼 숨어 들어가고 만다. 그렇기에 우리 봉사자들은 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어야 한다. 편안한 분위기와 그들에게 맞는 눈높이로 툭 건드리기만 하면 아름다운 그들의 삶 속에서 같은 행복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다만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작은 보탬이 됨이 그저 기쁘고 감사할 뿐이다.

아이들도 심성수련은 마음의 문을 열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눔으로써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고 가치관 형성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곤 한다.

심성수련을 마치고 교정을 뒤로 할 때면 알찬 프로그램으로 더욱 더 열심히 상담에 임해야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하곤 하지만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은 내일을 위한 기대 때문일 것이다.

미래 사회의 일원으로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인 심성수련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도록 이끄는 심성수련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느끼면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난 지금 가슴이 벅차온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낀다.
며칠 있으면 받게 될 보수 교육이 기다려지기 때문이다.
어떤 선배님들을 만날까? 어떤 후배님들을 만날까?
우리들의 교육을 돕는 이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될까?
난 지금 이 순간
마음껏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도 행복하다.

학생상담 자원봉사 10년의 감회

15기 / 한 희 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항상 밝은 목소리의 서부 부회장님의 전화를 받았다. 자원봉사 10년 된 소감을 메일로 보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렇게 항상 챙겨주시고 아껴주시는 선배님들 덕분에 지금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해온 일이었다.

불현듯 그 추웠던 겨울이 생각난다. 100년만의 폭설이라나 고층 아파트 창문이 깨져 나갈 정도로 춥고 눈보라가 치던 해였던 것 같다.

지금의 학생회관 자리였던 축현초등학교는 변변한 난방시설이 없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추웠던 기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 옆의 짝꿍이었던 해바라기님(별칭만 생각남)이 당신은 집이 가깝다며 전기 방석을 따뜻하게 데워서 앉으라고 자리 비껴주시던 미소가 아름답던 그 분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정말 한번쯤은 보고 싶은 얼굴이다.

비록 날씨는 추웠지만 같이 기초교육을 받은 모든 분들의 열기는 아주 뜨거웠던 것 같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나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새로운 나를 다시 하나하나 찾아가는 여행과도 같았다.

정말 이제부터 내 안에 있는 열정을, 사랑을 맑고 순수한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행복했다.

처음 배치되어 갈 때는 두려움, 기대, 흥분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지만 그때마다 선배님들의 자상함은 나에게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다.

그때 처음 만났던 12기 선생님과는 지금도 친근하게 아껴가며 재미있게 봉사를 하고 있어 항상 감사하다. 그 당시 3세 늦둥이 중학교 2, 3학년 두 딸의 격려와 지지가 있었기에 긍지를 갖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다.

10년 동안 상담하면서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아련히 떠오른다. 인천대공원에서 행사가 있어 참여하고 있는데 낯익은 예쁜 숙녀가 다가오며 인사를 했다. 모 여고에서 고1때 선생님께서 심성수련에 오셨다며 그때 별칭을 이야기 하며 자신에 대한 가치관 확립에 도움이 되었다며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 덕분에 대학전공도 쉽고 편하게 결정해서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새내기였다. 그때의 감동은 정말 보람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이었던 학생도 기억에 남는다.

수의사가 꿈이었던 그 학생은 대학교의 목표도 확실했다. 대학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학과를 설명해 주니 눈망울을 초롱초롱 반짝이며 관심 있게 듣는 학생을 보며 다시 한 번 이 일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했다.

요즘 아이들은 문제라며 비난만 하기 전에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요 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봉사가 큰 힘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깊이 깨닫는다.

2010년은 내게 많은 감회를 느끼게 하는 해인 것 같다.

10년 근속이라는 뿌듯함과 예쁘게 성장하여 결혼을 한 우리 큰딸… 보람 있는 한해인 것 같다.

모두 감사하고 행복하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다. 매번하는 학생상담 이지만 항상 아쉬움을 뒤로 하게 된다.

세상은 나의 어릴 적과 다르게 부족함 없이 풍요롭기만 한데 아이들의 마음속은 점점 야위어 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며 배려하고 아끼며 봉사자로서 소명을 다하고 싶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학생상담봉사자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급 지도자 과정을 마치고

20기 / 서 미 애

오늘은 어떤 꽃들과 만나게 될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 꽃을 피울까?
오늘은 어떤 향기가 풍겨 나올까?
오늘은 어떤 자연을 만나게 될까?
오늘은 어떤 향기에 젖어 올까나?

언제나 그러하듯이 새로운 만남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앞선다.

여러 만남들이 있었지만 이번 중급 지도자 과정에서의 만남은 기대와 설레임이 함께 하였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상담실에 모여 앉은 반가운 얼굴들과 마음으로 인사하고 새로운 얼굴들의 기대감으로 눈인사를 주고받았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소개를 하는데 13기 선생님부터 거의 선배님들이시다. 모두 낯선 선배님들이지만 선배님이라는 긴장감보다는 선배님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기대의 막내의 마음이 더욱 컸었다.

중급 지도자 과정이니 만큼 나를 열고 나를 바로 봐야 한다는 헬퍼 선생님의 서두로 중급 지도자 과정 교육이 시작되었다.

교육을 하는 중간쯤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색깔들이 서로 빛을 내기 시작하였

다. 그 색깔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앞 다투어 빛을 발하였다.

답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각 팀들은 불꽃 튀는 토론에 열중하였다. 과정을 중요시 하는 선생님들과 결과를 중요시하는 선생님들 모두가 각자의 빛을 발하였다.

이 빛깔은 서로 다른 에너지가 되어 잔잔했던 나의 마음을 번쩍 깨워주었다. 서로가 설득하고 설득되어 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처음부터 브레이크가 걸렸다. 나와 전혀 다른 생각과의 충돌을 지혜롭게 풀어간다는 것은 역시 쉬운 것이 아니었다.

쉽지 않았기에 더욱 흥미롭고 진지한 순간들이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생각해 본다. 물론 결과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 과정이야 어찌되었든지 결과가 중요하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심성수련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돌아보게 한다.

역시 하나의 빛깔 보다는 무지개의 여러 빛깔들이 모여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어제의 에너지를 안고서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다시 모였다.

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들은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 하였다.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 공감해 주고 서로 지지해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하시며 연기하시는 헬퍼 선생님의 분위기에 우리는 모두 압도 되었다.

상처!

바로 상처이다.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다른 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정말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고 특히 내 주변의 가까운 이들이 떠오른다.

이렇게 다른 이들을 배려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깨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언제나처럼 우리들의 만남 뒤에는 넘치는 배움과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로 맺음을 하는 것 같다.

서로 다른 색깔과 서로 다른 에너지들의 힘을 보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를 다

듬어 가는 우리를 보게 된다.

그 속에서 다듬어 지는 우리의 보석들……

서로 다른 빛깔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색깔의 에너지로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되는 것 같다.

이번 중급 지도자 교육에서는 또 다른 그리고 더욱 강한 에너지와 여운을 안고 일어서게 된다.

다른 빛깔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의 모델링 헬퍼 선생님과 중급 지도자 교육 과정을 함께 만들어 갔던 멋진 우리 선생님들의 빛나는 보석들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중급 지도자 과정 교육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인생에서의 나는 아직도 교육의 과정 중에 서있다.

상급

내게 심성수련은…

19기 / 정 순 영

어느덧 6년째… 매년 심성수련을 하면서도 학기 초 학교를 배정받고 심성수련을 준비할 때면 처음 심성수련 할 때처럼 설레게 된다. 첫 심성수련을 위해 프로그램의 활동 목표와 주요 활동 등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선배 선생님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되새기며 준비하고 준비했었던 기억이 항상 되살아난다. 그때의 수첩은 이제 조심해서 읽어야 할 정도로 너덜너덜해졌다.

올해도 함께 활동하게 된 선생님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프로그램 스터디를 하면서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멋지게 해결하고 나오시는 우리 학생상담봉사자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하시다.

약간은 서로가 조심스러운 학기 초에 시작되는 심성수련은 학생들에게도 기대감이 큰 것 같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서도 친구들과 진지한 대화를 할 틈이 없었기에 서로가 소통할 수 있었던 이 시간은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고등학교에서의 심성수련은 내게 좀 더 뜻 깊다. 학창 시절의 나를 떠올려보며 그때의 고민과 친구들과의 대화, 지금까지도 내게 힘이 되어주는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들, 고등학생인 딸아이의 다양한 생각과 아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이번 심성수련 학생들과의 공감대 형성은 좀 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학교 때 왕따 당했을 때의 절망감, 불안감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친구, 손에 문신한 말투도 불량스러웠던 아이의 순진한 고백 등을 들으며 정말이지 덩치

가 산만한 남학생 아이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다. 떠들어도, 태도가 불성실해도, 말을 잘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보이는 아이도, 손에 문신한 불량스런 아이까지도 모두가 예뻐 보였다. 그래서 내게 더 힘을 주는 시간이 된 듯하다.

이번 고등학교 심성수련 프로그램은 '자기공개, 나의 삶의 설계, 마음가짐의 행동'이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되 현재의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자기공개'는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좀 더 이해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집중하여 다른 이들이 들어주었을 때 마음에서의 뿌듯함을 느끼고 피드백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도 되는 듯했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신의 단점은 쉽게 찾고 말하면서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기도 하였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는데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아이들에게 좋은 칭찬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삶의 설계'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 설계를 해 봄으로써 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삶을 계획을 짜보는 프로그램이다.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삶을 설계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인명문대생 연구' 논문에 의하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유학생중 한국학생의 중도 탈락율이 44%로 가장 높았다. 그 원인이 한국 유학생에게는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명문대만이 목표였지 인생 전반을 두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겠다.'라는 식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학생들에게는 사실 너무도 시간이 없는 것 같다. 이리저리 시간에 쫓기다보니 내일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심성수련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설계를 본인의 능력과 희망을 기초로 실현 가능하게 계획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아쉽다. 좀 더 자유롭게 학교의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된다면 가슴속의 스트레스를 쉽게 떨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더 공부하고 더 준비해서 학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유익해 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야 함을 생각한 시간이 되었다.

구제역으로 수련회 취소 후 하게 된 심성수련

17기 / 장 정 륜

구제역으로 학생들이 수련회가 취소되어 심성수련을 하게 되었다.

하루라도 학교를 벗어나 자유롭고 싶었던 아이들의 마음을 어찌 돌려놓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기다리는 교실로 들어갔다.

역시 아이들의 마음은 강화도에 가 있었다. 선생님! 저희 오늘 수련회 가는 날인데 구제역으로 못 들어가면 장소를 변경해야지 아주 취소가 되어 속상해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아휴 속상해! 하는 솔직한 표현의 아이들.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어찌 돌려놓을까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흔들린 마음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야간 자율 수업까지 해야 하는 힘겨운 학교생활을 잘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에 목표 설정을 하며 심성수련이 무엇인지에 대해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였다.

순간의 분위기에 맞게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 주었더니 한아이가 손을 번쩍 들며 선생님 목소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끌어드려요. 수업도 이렇게 한다면 집중이 잘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궁금해요. 빨리 해보고 싶어요. 하며 모두의 눈동자들이 저를 바라보는데 너무나 예쁜 아이들의 모습에 제가 빨려 들었다.

별명과 별칭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또 다른 나의 멋진 이름을 자연이나 사물 중에서 찾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날은 특별히 자유로운 별칭으로 했다. 30여분 “나 자신이 최고”라는 설명을 해주어서인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직업 별칭으로 가슴에

달아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 이 자리에 선 기분으로 각자의 소개를 하자고 했더니 너무도 좋아하는 아이들, 각자 소개 후 한 친구에게 우리 조 소개를 부탁하니 친구들의 설명을 귀담아 듣고 한명의 친구들마다 평상시의 느낌을 보태어 발표하니 모두가 놀랍고도 으쓱한 분위기로 처음의 시무룩한 분위기가 반전 되었다.

두 번째의 "멋진 나" 프로그램에서는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엄마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한없이 울던 아이, 울음이 그치지 않아 조원 친구들이 등을 토닥여 주며 울던 친구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가장 소중한 사람 역시 엄마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모든 친구들의 마음이 숙연해 진 분위기였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 주변인들이며 이들은 내가 미워서가 아닌 그만큼 허물이 없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표현들이 나에겐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힘들게 하지만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분들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라고 하니 모두가 끄덕이며 친한 사람일수록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되며 친구에게 던지는 말 한 마디도 내가 들었을 때의 기분을 생각하며 해야 한다고 하니 "아! 맞아요."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속의 힘든 과정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었음을 깨우치며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절실히 느낀 것 같다.

세 번째 "가치관 경매" 프로그램은 각자 살아가며 지니고 느끼는 생각이 다른 나만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설명을 하니 모두가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것을 사고자 하는 열띤 모습들이 보였다. 이번 아이들의 특성은 내가 선택한 가치관이 살 수 없는 상황에는 대부분 다른 선택을 하는데 이친구들은 끝까지 꼭 사야 될 것만 고집하는 친구들이 눈에 띠었다. 그런 친구들로 인해 만원에 낙찰된 가치관이 두 개나 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거의 100% 투자해 자신이 선택한 가치관 중 특히 한 개만을 목표로 한 아이, 다른 친구들의 선택과 달리 세 가지 모두를 획득한 아이 등 가치관경매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성향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각자의 느낌나누기 시간에도 프로그램을 할수록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는 친구들의 말에 시간이 짧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네 번째의 "자성예언"은 살아가며 현재의 내모습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보며 난 꼭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이니 만큼 실현할 수 있는 항목

을 선택하라니 선택하는 모습도 신중하다. 모두 선택 후 돌아가며 자신이 선택한 항목을 읽고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 아쉬웠으며, 모두가 큰소리로 자신이 선택한 항목을 다 같이 큰소리로 외칠 때의 함성으로 그 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확 풀렸으리라.

마지막 소감문 쓰기 전 명상의 시간으로 잠시 오늘의 프로그램 정리를 해주고 여러분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며,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눈을 뜬 후 각자의 느낌을 물어보니 처음 수련회 취소로 시무룩했던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시간이 끝이라는 것에 너무나 아쉽고 고등학교 올라와 야간수업까지 해야 하니 몸과 마음이 힘들어 즐겁지가 않았는데 오늘 심성수련 시간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알았기에 이제부터 친구들과 학교생활 즐겁게 하고, 말을 할 때도 조심하며, 내 꿈을 이루는 길의 첫째가 학업이기에 공부에 전념하겠다는 아이, 자신의 꿈이 가수이기에 공부도 하면서 부모님께 말씀 드려 학교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고 연습할 공간이 없어 아쉽다고 해서 인천시청 역사에 있는 춤 연습장을 알려주며 가장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작전역에도 예산상 힘들겠지만 제안을 해보기로 약속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우선인지 깨우치며, 표정이 처음 시작과 달리 환한 미소로 바뀌어 두 시간의 힘이 하루 수련회를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주었고, 지금보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거라는 믿음이 나 자신 학생상담봉사자회를 지금껏 보람 있게 활동하고 있는 끈인 것 같다.

내가 늘 바라보는 아이들

17기 / 임 은 령

초록색이 예쁜 6월 미산초등학교 심성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성수련 수업 전 겪는 통과의례처럼 몇 일 전부터 왠지 모르는 긴장감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같이하시는 20기 선생님. 새내기 24기 선생님 밝은 얼굴을 보며 맘을 진정시키고, 아자 아자! 파이팅을 외치며 힘을 냅니다.

대면식후 몇 달 만에 뵙는 미산초등학교 채혜경 선생님이 활짝 웃으시며 저희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작은 배려이지만 신경을 써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하며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했습니다.

도서열람실, 상담실, 6학년 교실로 심성 활동 장소가 배정되었고, 1시간 30분 동안 직업별칭 짓기, 얼마나 알고 있나요, 사랑의 바구니, 소감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소개와 함께 오늘 함께할 심성수련의 목적과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을 하였습니다.

직업 별칭 짓기 - 자신을 칭하는 이름을 직업으로 짓는 것에 재미있어하며, 고민도 하며 멋지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은 직업에 대하여 소개도 하고 친구들의 지은 직업에 대해서도 박수를 쳐주며 격려해 주는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두 번째 활동인 “얼마나 알고 있나요.”는 개인을 이해하고 난후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업에 대하여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직업과 새롭게 생긴 직업에 대하여 발표하고 좋아하는 과목도 정했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이 서로 같을 때 서로 좀 더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았고, 연관되는 직업들을 적고 예쁘게 장식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현재와 미래의 직업, 흥미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 등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바구니"로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어울리는 색으로 사탕을 꾸미고 격려와 사랑의 말들을 선물하였습니다.

사랑의 바구니가 멋지게 꾸며지고 멋진 선물들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 꿈을 이룰 수 있게 축복해 주는 말들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된 것 같았습니다.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은 다음을 기약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감문을 끝으로 심성수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의 에너지를 받고 갑니다.

받는 봉사에서 나누는 봉사로

24기 / 김 선 미

요즘은 일반인을 위한 질 좋은 사회교육이 많고 그렇게 다양하고 좋은 교육을 적성에 맞게 선택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역시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면서 좋은 교육과 정보를 얻으면서 즐거워만 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나도 누군가의 노력과 봉사를 받기만 하지 말고 받은 것을 나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나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아이학교를 통해서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알게 되어 지원을 하게 되었다. 자원봉사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내 능력이 닿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많은 지원자들을 보는 순간 내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무척 긴장도 되었지만, 꼭 이 일을 해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했고 다른 사람들의 봉사활동 경력을 들으면서 난 너무 몰랐고 이렇다 할 경력도 없어서 말도 못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저 웃음으로 그 순간을 버틴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다. 그래도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에서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는 나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이 되었는지 합격축하 연락을 받았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나처럼 능력도 없는 사람을 믿어주고 기회를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어렵게 얻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 달간의 기초교육은 가장 추웠던 날에 받았지만 간절히 원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추운 날씨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정도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기초교육을 받으면서 봉사하는 삶에 대해 알게 되었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서 부족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당당하고 '나'다운 삶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꼼꼼히 알려주신 강복금선생님의 탁월한 능력은 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내 모습이 강복금선생님의 모습을 닮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의 목표를 정했고, 조별 활동을 하면서 동기선생님들과 더욱 친할 수 있게 되어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고 잠시 학생의 위치를 느껴 볼 수도 있었던 것과 시연교육은 현장에서 학생들과 활동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어느 교육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우수한 강사진과 알찬 프로그램으로 매 시간마다 소홀함 없이 짜여진 기초교육을 마련해 주신 분들과 기초교육을 받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애써주신 선배선생님들의 배려와 봉사는 정말 따뜻하고 감사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기초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17기 김선희 선생님을 대표로 22기 임성엽 선생님, 22기 박영주 선생님과 함께 진산중학교에서 性에 관한 심성수련을 하게 되었다. 처음이라 떨리는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진행할 프로그램을 꼼꼼히 짚어 주시면서 확실히 숙지시켜 주셨고, 특히 첫 심성수련 하는 날 힘내라고 영양가득한 밥도 사주시고 준비물이 빠진 것이 없는지 일일이 챙겨주시고 가장 아늑하고 편안한 장소를 골라서 먼저 선택하게 해 주신 배려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걱정 말라고 떨리는 내 손을 꼭 잡아 주시며 힘을 불어 넣어 주신 세 분의 선배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은 잊을 수가 없다.

첫 심성수련을 하면서 학생들의 진심을 알 수 있었고 겉과 달리 마음과 영혼은 정말 순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학생들을 이해 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사랑스러워졌다. 내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고 믿음과 너그러운 용서는 매보다 강하다는 것을 학들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특히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한 노력

은 나로부터~' 심성수련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질문하는 학생들이 심성수련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과 보람을 느낀다.

소감문을 받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해 준 것이 없는 내게 고마워하는 글은 나를 좀 더 갈고 닦게 하는 좋은 약이 되어 조금씩 치유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내게 더 필요한 일이란 것을 느끼게 되고 내가 더 감사함을 느낀다.

선배선생님들의 배려에 힘을 얻어 첫 심성수련을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이미 준비 되어 있었던 것처럼 순조로웠고 내가 학생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교만하게 혼자 뭔가를 하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심성수련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진산중에서의 심성은 언니 같은 세 분의 선배선생님들의 배려 덕분에 더욱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매번 점심을 함께 먹고 차도 마시면서 경험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 배우고 힘이 되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심성수련을 할 수 있어서 심성수련 하는 날이 더욱 즐겁고 특별한 날이 되어 나를 들뜨게 한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는 삶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던 나에게 다시 한 번 잘 살아보고 싶은 희망을 주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특히 나의 작은 변화에 아들과 남편이 더불어 행복해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기분 좋은 일인 것 같다.

나답고 인간다운 삶을 가르쳐 준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에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기본부터 바르게 배우고 익혀서 성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에 감사이상의 감사를 드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향기가 온 세상 가득 퍼져 나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

끝으로 사랑으로 학생들의 맑고 순수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 자원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선생님들이 계셔서 세상이 더욱 아름다울 수 있는 것 같아서 멋진 선생님들께 존경의 갈채를 보내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

Chapter 5

학생생활지원부서 활동보고

▸ 담임교사들 심성수련 실시(시민일보) / 마전중

▸ 2010년 총무부 활동보고 / 12기 김경희

▸ 영역별 현황(인성, 진로, 성, 약물, 리더십) / 학술부

▸ 지도자과정 및 아카데미수료 현황 / 학술부

▸ 연혁

담임교사들 심성수련 실시(시민일보)

–마전中, 집단상담 방법 · 기술 가르쳐–

마전중학교(교장 김한룡, 서구 소재)는 최근 각반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상담 심성수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담임교사들과 학년부장들이 학년별로 각 교실에 모여 상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신학기 초라 눈코뜰새 없이 바쁜 시기임에도 시간을 내 심성수련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두 가지 취지에서다.

▶ 마전중학교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심성수련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같은 학년을 맡은 교사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해 친목을 도모하며 담임교사들이 집단상담의 방법과 기술을 배워 반 학생들과 집단상담을 실시하려 한 것이다.

이번 수련은 시간이 짧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끊임없이 웃음이 쏟아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마음을 나눠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오유경 교사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 시간이 짧아 아쉬웠다”면서 “이번에 해봤던 프로그램을 저희 반 학생들과 꼭 해봐야 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진행한 장미아 진로인성부장은 “학기 초 바쁜 와중에 실시한 심성수련이라 교사들이 잘 호응해 줄지 걱정이 많았으나 교사들이 마음을 열고 참여해 주고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에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기사 등록 일시 2010-03-28 18:45:31siminilbo.co.kr All rights reserved

2010년 1학기 협력학교 활동현황(남부)

순	학교명	대표자명	봉사자명	활동프로그램
1	구월초	강명순(11)	유해숙(13), 이숙정(18)	별칭짓기, 부모님말씀 10가지, 연상화 그리기
2	구월서초	강명순(11)	도인숙(19), 박근희(24)	별칭짓기, 부모님말씀 10가지, 연상화 그리기
3	상아초	홍숙애(12)	안순희(20), 박진경(24)	별칭짓기, 연상화 그리기, 백지상담
4	용현남초	박수영(18)	오은숙(23), 최현숙(24)	별칭짓기, 아름다운 나,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 장애인 체험하기
5	서흥초	김동임(16)	백경아(21), 이미정(24)	
6	석천초	김연숙(21)	김순희(21), 이재용(22)	(5) 직업 별칭짓기, 나를 소개합니다, 사랑의 바구니 (6) 직업 별칭짓기, 나의 위치, 자성예언
7	영흥초	최정순(12)	정혜숙(9), 김옥영(8), 구자선(11), 김경희(12), 서미애(20)	희망 별칭짓기, 멋진 나, 나를 광고합니다.
8	정각초	김경옥(17)	이향숙(16), 김경자(22)	별칭짓기, 12명의 사람들, 고민이 생겼어요.
9	간석여중	도인숙(19)	소성희(22), 박근희(24), 김윤분(24)	별칭짓기, 나의 장단점, 나의 위치
10	공항중	김경희(12)	정혜숙(9), 김광순(21), 이진희(24)	별칭짓기, 거울로 비치는 나의 모습 연상화 그리기
11	박문여중	강복금(8)	민혜숙(15), 이경애(13), 유순자(24)	별칭짓기, 나의 탐색,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12	석정중	김희(20)	안순희(20), 김경자(22), 이재용(22)	별칭이어 부르기, 자녀에게 쓰는 편지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련다.
13	신흥중	임영옥(15)	조양미(22), 김은경(23), 안은희(23)	그림으로 이름 표현하기, 자기공개
14	신흥여중	임영옥(15)	장해남(23), 김희정(24), 최현숙(24)	별칭짓기,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사랑의 꽃
15	화도진중	김현자(15)	양인숙(18), 한지량(22)	별칭짓기, 친구가 왜 소중할까? 그림보고 말 전하기
16	인주중	임영미(12)	변향미(22), 김희정(24), 이길자(24)	별칭짓기, 나의 복주머니, 마음 문 열기
17	구월중	김경옥(17)	김순희(21), 황은옥(21), 박효정(21), 이연옥(24)	별칭짓기, 나의 장단점, 나를 소개합니다. 나의 방패, 성에 대한 진실
18	인천남중	김순임(12)	윤효경(21), 권선영(22), 안은희(23)	별칭짓기,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알고 있는 성
19	관교중	정경숙(18)	배남숙(21), 김선옥(21), 이길자(24)	직업 별칭짓기, 나의 위치, 자성예언
20	구월여중	김홍숙(12)	변향미(22), 배남숙(21), 정경숙(18)	별칭짓기, 나의 목표사다리, 자성예언

순	학교명	대표자명	봉사자명	활동프로그램
21	동인천중	양미자(18)	김희(20), 김선옥(21), 차정화(23)	직업 별칭짓기, 나의 방패, 자성예언
22	성리중	홍숙애(12)	이향숙(16), 박효정(21), 남순임(22)	별칭짓기, 나의 목표사다리, 백지상담
23	용현여중	임영미(12)	김진희(22), 조양미(22), 차정화(23)	별칭짓기, 나의 위치, 직업게임
24	송도중	한혜자(8)	이경애(13), 김경희(21), 김순애(22)	별칭짓기, 소중한 나, 성에 대한 진실
25	용현중	김홍숙(12)	양미자(18), 한지량(22), 오은숙(23)	별칭짓기, 이럴 때 나는, 성에 대한 진실
26	인성여중	이효숙(12)	김현숙(22), 차정화(23)	
27	동산고	손미숙(17)	김화정(20), 김현숙(22)	별칭짓기, 내 마음의 풍차, 닭과 독수리
28	도화기공	이경자(5)	양인숙(18)	의미 있는 별칭짓기, 멋진 나, 마음가짐의 행동
		손미숙(17)	김화정(20), 유순자(24)	별칭짓기, 나의 소개서, 가치관 경매
29	과학고	정혜숙(9)	정신기(6), 구자선(11), 최정순(12), 김경희(12), 민정숙(12), 박정숙(14), 범혜경(16), 한명화(17)	별칭짓기, 나의 소개서, 가치관 경매
30	광성고	박양순(11)	유인선(15), 손미숙(17)	
31	산업정보학교	이은자(12)	박수영(18)	지금 하십시오. 별칭짓기, 나의 소개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32	인천여상	이현순(10)	황은옥(21), 김은경(23)	별칭짓기, 내 마음의 풍차, 맹인과 달팽이
33	전자공고	지설완(16)	정경숙(18)	심성수련 안내, 별칭 짓기, 닭과 독수리, 말 전달하기
34	정보산업고	김현자(15)	김경희(21), 문지희(22)	별칭짓기, 자기공개, 가치관 경매
35	인하부고	김병임(8)	지금숙(6), 이복희(13), 지설완(16), 박외순(18), 백경아(21)	별칭짓기, 나의 나무, 마음가짐의 행동
36	운봉공고	지금숙(6)	정양숙(22)	별칭짓기, 멋진 나, 성에 대한 진실
37	학익여고	김현숙(12)	지금숙(6), 진영순(6), 김진희(22)	직업 별칭짓기, 나의 목표사다리, 닭과 독수리
38	해사고	홍미숙(13)	배남숙(21)	별칭짓기, 나 자신만나기, 가치관 경매
39	비즈니스고	홍효표(17)	박양순(11), 이미정(24)	내 마음 별칭짓기, 나 자신만나기, 나의 나무(1학기)

2010년 1학기 협력학교 활동현황(북부)

순	학교명	대표자명	봉사자명	활동프로그램	
1	갈월초	김옥영(8)	송정미(23), 배순란(24)	별칭짓기, 아름다운 나, 연상화	
2	구산초	김혜숙(5)	문수영(20), 류희숙(16)	별칭짓기, 나를 소개합니다. 어머님 말씀 10가지, 어항 꾸미기	
3	부평북초	장인옥(16)	임성엽(22), 최경미(24)	직업 별칭짓기. 연상화 그리기, 최근에 있었던 일	
4	십정초	이행순(18)	윤경진(21). 박경숙(24)	별칭짓기, 약속, 최근에 있었던 일	
5	백운초	박종숙(18)	조현주(20), 김기순(21)	별칭짓기 연상화 그리기 약속	별칭짓기 연상화 그리기 부모님 말씀 10가지
6	미산초	임은령(17)	조경애(20), 신지영(24)	직업 별칭 짓기, 얼마나 알고 있나요? 사랑의 바구니	
7	산곡남초	박현자(12)	임미순(22), 박정아(24)	별칭짓기, 최근에 있었던 일, 어항꾸미기	
8	청천초	구자선(11)	이영화(20), 김선미(24)	직업별칭 짓기, 아름다운 나, 연상화 그리기	
9	부내초	문경원(17)	황선랑(12), 진명화(22)	직업 별칭짓기, 내가 좋아하는 일은?, 요술 상점	
10	진산초	한리숙(18)	최경미(24), 서강승(20)	별칭짓기, 창문 열기, 연상화 그리기	
11	구산중	문미혜(8)	박진숙(12), 위성애(22,) 이숙자(22)	직업 별칭짓기, 나는 한다.(문장 완성) 나의 목표 사다리	
12	부광중	양미경(10)	홍순정(16), 진명화(22), 이영주(23)	별칭짓기, 나의 장단점 나의 목표 사다리	
13	부원여중	고영임(13)	황선랑(12), 유은숙(21), 박경숙(24)	별칭짓기,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나의 목표사다리	
14	부평여중	김선희(17)	장인옥(16), 박정아(24), 김현숙(20)	직업 별칭짓기, 나의 위치, 나의 방패	
15	산곡중	김경희(12)	박종숙(18), 박현숙(20), 박영주(22)	별칭짓기, 나의 목표 사다리, 자성예언	
16	산곡여중	류희숙(16)	위성애(22), 장 숙(22), 신지영(24)	별칭짓기, 최근에 있었던 일, 동물 가족화	
17	삼산중	임윤희(7)	이숙자(22), 이영주(23), 박경숙(24)	별칭짓기, 얼음장 깨기, 장단점 말하기	
18	갈산중	김광희(11)	강석연(21), 이선희(21), 이영미(23)	직업 별칭짓기, 의미있는 그림이야기 자성예언	

순	학교명	대표자명	봉사자명	활동프로그램
19	부일여중	이순애(4)	윤경진(21), 최경미(24)	별칭 이어부르기,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나의 방패
20	부평중	최동숙(18)	조현주(20), 송정미(23), 김현숙(20)	별칭짓기, 나의 주머니, 나의 목표 사다리
21	진산중	김선희(17)	임성엽(22), 박영주(22), 김선미(24)	사랑스런 나 표현하기, 내 마음은 사춘기 또철이에게 생긴 일
22	부평서여중	정신기(6)	박현자(12), 김은영(21), 황경순(20)	직업 별칭짓기, 거울보기, 나의 위치
23	상정중	민양기(9)	김선희(17), 임은령(17), 배순란(24)	별칭짓기, 나의 위치, 나의 방패
24	부개여고	김성자(14)	강석연(21), 유복순(12), 장인옥(16)	별칭지어주기, 나 자신 만나기, 나의 나무
25	부광고	문경원(17)	이영화(20), 조현주(20)	직업 별칭짓기, 멋진 나,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련다.
26	부평디자인 과학고등학교	유복순(12)	홍효표(17), 강문경(21)	별칭짓기, 멋진 나, 맹인과 달팽이
27	부평공고	이춘자(19)	한리숙(18), 김선희(21)	별칭짓기, 멋진 나, 맹인과 달팽이
28	부흥고	박진숙(12)	양미경(10), 민경란(12)	직업 별칭짓기, 내 마음의 풍차, 가치관 경매
29	제일고	이순애(4)	서미애(17)	직업 별칭짓기, 멋진 나, 명함 만들기
30	영선고	민경란(12)	김광희(11), 김순옥(15)	직업 별칭짓기, 명함 만들기, 가치관 경매
31	산곡고	김순옥(15)	이행순(18), 최동숙(18), 정미애(13)	직업 별칭짓기, 닭과 독수리, 자성예언 나의 방패
32	세무고	서미애(17)	구자선(11), 문경원(17)	직업 별칭짓기, 멋진 나 나의 인생설계, 맹인과 달팽이
33	진산고	김옥영(8)	김희정(14), 류희숙(16)	별칭짓기, 내 마음의 풍차, 가치관 경매
34	인평자동 차정보고	홍효표(17)	김성자(14), 장인옥(16), 문경원(17)	내마음 별칭짓기 나 자신 만나기 나의 나무 직업 별칭 짓기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 명함 만들기
35	상정고	구자선(11)	장인옥(16), 백영옥(17)	작업 별칭짓기, 멋진 나, 명함 만들기

2010년 1학기 협력학교 활동현황(동부)

순	학교명	대표자명	봉사자명	활동프로그램
1	남동초등	민정숙(12)	김정미(19). 정인자(21)	별칭짓기. 부모님말씀 10가지. 창문열기
2	동막초등	정순영(19)	이복순(19). 박영희(23)	별칭짓기. 아름다운 나. 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3	동방초등	박명옥(21)	고덕순(22). 이희자(24).	직업별칭짓기.직업의의미.내가좋아하는일은?
4	동춘초등	박인숙(18)	박명선(21). 오미숙(22)	별칭짓기, 연상화그리기. 요술상점
5	연화초등	이미숙(19)	서지연(23). 이생금(24)	직업별칭,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6	인수초등	계정란(19)	서인애(12). 신문혜(24)	별칭짓기, 부모님말씀 10가지, 요술상점
7	조동초등	김현숙(16)	소성희(22). 김선희(24)	별칭짓기, 연상화 그리기, 요술상점
8	청학초등	이성자(20)	김숙(21). 조경희(24)	별칭잣기. 요술상점. 2분 연설
9	축현초등	김태연(21)	김정화(20). 조경희(24)	별칭짓기. 아름다운 나 .내가 좋아하는 일은?
10	능허대초등	박정숙(14)	박영희(23). 한미숙(23)	희망 별칭짓기. 직업의 의미 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11	만수북중	유해숙(13)	민정숙(12). 노주숙(15). 김효정(20)	별칭짓기. 나 자신 만나기. 삶의 방패
12	만성중	범혜경(16)	박명숙(17). 한율이(19). 박양균(22)	별칭짓기.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의 위치
13	만월중	김현숙(16)	최미경(17). 지영신(21). 소성희(22)	별칭 이어부르기. 나자신 만나기. 동물 가족화
14	상인천여중	한화진(18)	김정미(19). 강봉현(20). 오은숙(23)	별칭짓기. 연상화 그리기. 화가나요. 사탕바구니
15	선학중	박명숙(19)	윤정희(20). 박숙일(20). 유지현(22)	별칭짓기, 나는 한다, 자녀에게 쓰는 편지
16	연수중	이성자(20)	노영순(22). 이명성(22), 조은희(23)	별칭짓기, 자녀에게 쓰는 편지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련다.
17	논현중	박용선(12)	김정혜(21), 김선희(24). 한혜정(24)	별칭짓기. 그림보고 말 전하기. 마음 문 열기
18	옥련중	강봉현(20)	정복화(21). 정영미(23). 홍상화(23)	별칭짓기. 자녀에게 쓰는 편지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련다.
19	연성중	박정숙(14)	신애순(14). 오은경(20). 정재란(23)	별칭짓기. 나의 장단점. 별님 내 소원 들어줘
20	숭덕여중	강명순(11)	이순자(11). 민정숙(12). 이향숙(16)	직업 별칭짓기. 자녀에게 쓰는 편지. 동물 가족화

순	학교명	대표자명	봉사자명	활동프로그램
21	인천여중	김향희(17)	진선미(18), 강미정(19). 이영애(21)	직업 별칭짓기. 나의 방패. 자성 예언
22	연화중	정순영(19)	박정숙(14). 김경분(20). 박영희(23)	별칭 이어부르기. 나의 장단점 별님 내 소원 들어줘.
23	청량중	강혜영(19)	김유순(22). 박명화(22). 서지연(23)	별칭짓기. 나 자신 만나기 .자녀에게 쓰는 편지
24	인송중	김영수(12)	김태연(21). 송경숙(22). 최분옥(24)	별칭 이어부르기. 나의 장단점. 얼음장 깨기
25	청학중	권순실(18)	손금자(10). 김혜정(21). 송안순(23)	별칭짓기. 나의 손. 방공호
26	함박중	마혜숙(14)	송경숙(22). 오미숙(22). 조은희(23)	직업별칭. 나의 장단점, 나의 위치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련다.
27	남동중	정복선(19)	민정숙(12). 범혜경(16). 김현숙(16)	별칭짓기. 나를 소개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28	논곡중	김난순(15)	박진숙(21). 김숙(21). 안향임(24)	별칭짓기. 나의 장단점, 자녀에게 쓰는 편지
29	능허대중	이복순(19)	윤정희(20). 홍상화(23). 안윤경(24)	별칭짓기. 나의 장단점. 별님 내 소원 들어줘
30	만수중	성수영(18)	한율이(19). 최민아(20). 박양균(22)	별칭짓기 .나의 방패. 자성 예언
31	남동고	문정희(11)	최영희(13). 이정자(21)	직업별칭. 가치관 경매. 악어가 사는 강이야기
32	논현고	이복순(19)	박명옥(21), 노영순(22)	자기공개. 인생설계
33	도림고	이옥선(7)	진선미(18). 이명성(22)	별칭짓기. 나의 나무. 마음가짐이 행동이 변한다.
34	만수고	김송연(13)	정복선(19), 김효정(20)	별칭짓기. 나의 나무. 성의 진실 20가지
35	문성정보 미디어고	민정숙(12)	범혜경(16). 한화진(18)	별칭짓기. 가치관 경매. 나의 직업탐색 악어가 살고 있는 강 이야기. 과일바구니
36	문일여자고	이순자(11)	강명숙(11). 김현숙(16). 최은영(20)	직업별칭 짓기. 나의 소개서. 내 마음의 풍차
37	생활과학고	진선미(18)	고숙자(21). 이영애(21)	별칭짓기. 자기공개, 내 마음의 풍차
38	신송고	정순영(19)	이문주(12). 김미경(20). 이정자(21)	직업 별칭짓기. 나의 나무. 나의 기념비
39	연수고	신현희(16)	권순실(18). 정순영(19). 이복순(19)	자기공개. 가치관 경매. 맹인과 달팽이
40	연수여자고	정영옥(7)	신애순(14). 박정숙(14). 이정자(21)	희망 별칭짓기. 멋있는 사람. 인생설계
41	청학공고	박명옥(21)	최인자(20). 송안순(23)	직업 별칭짓기. 자기공개. 나의 인생설계
42	인천여자공고	신현희(16)	박정숙(14). 정순영(19)	희망 별칭짓기. 멋있는 사람. 나의 인생설계
43	해양과학고	장순자(19)	우명숙(20). 김태연(21)	내마음 별칭짓기. 멋있는 사람 .나의 인생설계
44	인천여고	신애순(14)	이복순(19). 장유찬(21)	자기공개. 인생설계

2010년 1학기 협력학교 활동현황(서부)

순	학교명	대표자명	봉사자명	활동프로그램
1	가석초	고미순(14)	김미애(24), 조영실(24)	별칭짓기, 아름다운 나, 연상화 그리기
2	가정초	박연자(13)	김효영(12), 채진희(16)	별칭짓기, 나의 장단점 말하기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련다.
3	검암초	한명화(17)	박순남(12), 안경이(23)	5학년 : 별칭짓기, 창문열기, 아름다운 나 6학년 : 꿈 별칭짓기, 어떤 것을 일이라고 할까요, 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4	계양초	김부자(17)	송세일(18), 김미애(24)	별칭짓기, 내마음의 풍차,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
5	봉수초	송세일(18)	백영옥(17), 김덕자(24)	가치 별칭짓기, 나의 위치, 맹인과 달팽이
6	심곡초	이형순(18)	윤정미(8), 김선경(24)	별칭짓기, 아름다운 나, 연상화 그리기
7	양지초	우수남(16)	한명화(17), 이형순(18)	직업 별칭짓기,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나를 소개합니다.
8	작전초	정문화(19)	이미순(12), 김금자(22)	별칭짓기, 연상화 그리기, 2분 연설
9	효성동초	이종순(17)	윤정미(8), 양선경(15)	별칭짓기, 아름다운 나, 어항 꾸미기
10	효성서초	송민수(16)	오수경(19), 정수일(21)	꿈별칭 짓기, 내가 좋아하는 일은?, 명함 만들기
11	백석초	김부자(17)	채순희(16), 조일수(21)	직업 별칭짓기, 직업의 의미, 내가 좋아하는 일은?
12	가정여중	김효영(12)	박연자(13), 김선희(21), 정경희(22)	내 마음의 별칭짓기, 동물 가족화 자녀에게 쓰는 편지
13	가좌여중	김춘녀(16)	정경숙(12), 김복순(22), 정경희(22)	별칭짓기, 동물 가족화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14	가좌중	양선경(15)	소선희(12), 황명순(12), 김영미(24)	직업 별칭짓기, 나의 위치, 자성예언
15	간재울중	정민주(19)	오지숙(19), 황보양선(21), 안경이(23)	별칭짓기, 거울에 비친 나의모습 나를 소개 합니다.
16	검단중	김경란(13)	박순남(12), 유혜련(22), 임옥수(23)	나의 가치 별칭짓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의 가치탐색, 나의 선서
17	계양중	김효영(12)	홍연숙(17), 김선희(21), 정미나(21)	별칭짓기, 마음 문 열기, 문장 완성하기
18	당하중	정영숙(11)	박순남(12), 정금숙(19), 김선경(24)	직업 별칭짓기, 나의 탐색, 나의 목표사다리

순	학교명	대표자명	봉사자명	활동프로그램
19	동인천여중	송세일(18)	송민수(16), 김춘녀(16), 김복순(22)	나의 가치별칭, 자기공개, 나의 목표사다리
20	북인천여중	최영복(17)	고미순(14), 서미애(20), 김명자(22)	별칭짓기, 부모님 은혜, 맹인과 달팽이 자성예언
21	서곶중	우수남(16)	정민주(19), 김순미(22), 김수임(23)	별칭짓기, 약속, 요술 상점
22	서운중	한희영(15)	노미자(6), 황명순(12), 정인순(24)	별칭짓기, 마음문 열기, 나를 소개합니다.
23	석남중	이형순(18)	백영옥(17), 정금숙(19), 유혜련(22)	직업 별칭짓기, 거울보기, 문장 완성하기
24	신현여중	노미자(6)	채진희(16), 김 숙(20), 황보양선(21)	별칭짓기, 부모님 은혜, 나의 장단점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련다.
25	신현중	송민수(16)	김춘녀(16), 이은숙(19), 김덕자(24)	직업 별칭짓기, 내가 좋아하는 일은?, 명함 만들기
26	작전중	백영옥(17)	김정순(12), 한영자(22), 김영희(24)	직업 별칭짓기, 나의 방패, 나는 할 수 있다. 마음가짐은 행동을 변화시킨다.
27	제물포중	황명순(12)	한희영(15), 백영옥(17), 김금자(22)	직업 별칭짓기, 나의 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련다.
28	원당중	오지숙(19)	이지나(18), 조일수(21), 최소희(22)	별칭짓기,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나는 어떤 친구인가
29	효성중	임연희(13)	강희연(17), 조정임(19), 서미애(20)	직업 별칭짓기, 나의 방패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련다.
30	가정고	고미순(14)	최영복(17), 이형순(18), 김 숙(20)	직업 별칭짓기, 나의 인생설계, 명함 만들기
31	검단고	김경옥(6)	채순희(16), 정민주(19), 고명숙(22)	그림으로 표현하기, 나의 나무, 나 자신 만나기
32	경인여고	홍연숙(17)	한명화(17), 이종순(17)	별칭짓기, 멋진 나, 가치관 경매
33	계산공고	김정순(12)	김효영(12), 임연희(13)	직업별칭, 멋진 나, 가치관 경매, 자성예언
34	안남고	최정순(12)	최영숙(10), 정문화(19), 정미나(21)	별칭짓기, 멋진 나, 명함 만들기
35	디자인고	정수일(21)	정은숙(22), 최소희(22)	내마음의 별칭짓기, 나의 나무, 맹인과 달팽이
36	백석고	정영숙(11)	이형순(18), 박당영(21), 김수임(23)	별칭짓기, 나를 소개 합니다. 자녀에게 쓰는 편지
37	원당고	김경란(13)	김경옥(6), 박송자(21), 고명숙(22)	가치 별칭짓기, 명함 만들기, 나 자신 찾기
38	효성고	이미순(12)	장정륜(17), 최진영(20)	별칭짓기, 멋진 나, 가치관경매, 자성예언

연 혁

연도	내역
1987	인천광역시 상담봉사자회 발족 과학연구원장 : 조준묵, 부장 : 지창호, 회장; 김돈희 봉사자 현황 : 상담봉사자 제1기 : 46명 교육이수, 활동학교 : 4개교 지역상담실 운영 : 연구원, 중앙, 부평
1988	과학연구원장 : 박수남9월 상담 봉사자회 회칙 개정, 자체 연찬회 : 장흥 토탈 교육관
1989	인천광역시 과학연구원에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개칭 12월 만남의 터 제1호 발간 심성수련 초급 지도자과정 연수 실시
1990	원장 : 박수남/유의순, 회장 : 신현녀
1991	원장 : 윤의순/이상룡, 회장 : 박용자
1992	과학연구원장 : 이상룡회장 : 박숙근, 9월 중앙 도서관내 상담실 개설 학교어머니회 등 24개 유관기관 1630명 심성수련학생 상담사례발표회 실시
1993	원장 : 김교대, 부장 : 김기수, 회장 : 박숙근
1994	회장 : 정인연
1996	원장 : 김교대/이성구, 회장 : 장기숙
1997	부장 : 김정자, 회장 : 장기숙
1998	회장 : 김돈희, 황순희 전국연찬회 주관
1999	원장 : 이기문, 부장 : 류광현, 회장 : 정신기 북부상담실(북구도서관내) 연수구상담실(연수구 청소년센터내)증설
2000	회장 : 이경자, 봉사자 컴퓨터교육 연수
2001	회장 : 강정옥, 북부상담실 야간근무 제도 운영
2002	원장 : 류병태, 부장 : 진익천, 회장 : 강정옥
2003	회장 : 지금숙
2004	원장 : 김행남, 회장 : 강복금, 중앙상담실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이전
2005	부장 : 진익천/김성필,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상담활동 91개교 실시
2006	원장 : 이팽윤, 회장 : 이정순, 20주년 전국봉사자회 연찬회 주관 인천시 봉사센터 가입/20주년 기념체육 대회 및 전시회 개최
2007	원장 : 이팽윤, 부장 : 진태하, 평생학습관내 동부상담실 개소
2008	원장 : 전병철, 부장 : 한남열, 회장 : 황복순
2009	원장 : 전병철/정갑순, 부장 : 한남열, 연구사 : 이영숙, 회장 : 정혜숙
2010	원장 : 정갑순, 부장 : 한남열, 연구사 : 이영숙 회장 : 정혜숙, 상담실장 : 김옥영, 부회장 : 최정순, 구자선, 박정숙, 김효영

2010년 제 24기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청소년의 미래에 희망이라는 날개를 달아 줄 봉사자를 찾습니다.-

1. **모집인원** : 00명
2. **자격** : ① 대졸이상의 학력 소지자
   ②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③ 기타 상담 봉사자로서 자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 11월 1일 ~ 27일
4. **면접일시** : 12월 15일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2) 880-0721 (기획연구부)
032) 777-0037 (중앙상담실) FAX : 032) 777-0039
032) 518-8300 (북부상담실) FAX : 032) 518-8301
032) 819-1315 (중앙상담실) FAX : 032) 819-1318

행복한 만남

창간호

편집위원 **담당연구사** : 신경순
회 장 : 정혜숙
홍 보 부 : 김효영, 김선희, 이종순
발 행 인 :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장 전병철
발 행 처 :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비매품>

인천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WWW.ienet.re.kr → 진로상담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지역상담실〉

중앙상담실 : (학생교육문화회관)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5번지
TEL : 032)777-0037, FAX : 032)777-0039

북부상담실 : (북구도서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서관길 19
TEL : 032)518-8300, FAX : 032)518-8301

중앙상담실 : (평생학습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30-3
TEL : 032)819-1315, FAX : 032)819-1318

〈지도위원〉

인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관 한남열
인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이영숙
인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김묘성
인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조미애
인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이귀원

〈편집위원〉

회 장 : 정혜숙
부회장 : 최정순, 박정숙
구자선, 김효영
홍보부 : 김선희, 이종순
사진부 : 문미혜, 문경원

2010 학생상담 사례집

발행인 :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장 정갑순
발행처 :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산 26-30
http://WWW.ienet.re.kr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Incheon Education & Science Researsh Institute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http://jobinfo.ienet.re.kr